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 새 해가 밝아 올 때를 맞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며, 지극히 낮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 슬프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25-26)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7호 2013년 1월 1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주한인교회 4,275, 주별 1위 CA

2위 뉴욕, 3위 뉴저지... 3, 4, 5위 순위 변경

본지 '2013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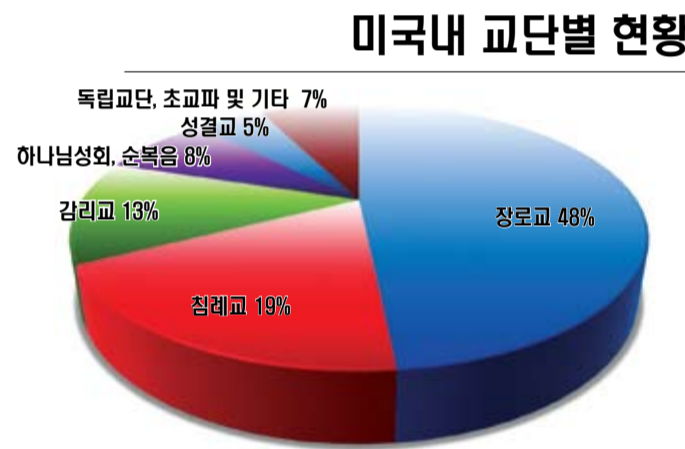
2013년을 맞으며 지난해 10월말까지 조사된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275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64개가 늘어난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80개국의 한인교회는 1,308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2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캘리포니아(1,264), 2위 뉴욕(451), 3위 뉴저지(251), 4위 일리노이(208), 5위 버지니아(206)로 전년도와 비교해 3, 4, 5 순위가 변경됐다. 지난해 4위였던 뉴저지는 3위로 전년도 3위였던 버지니아가 5위로 내려갔다. 교회 수는 캘리포니아 64교회,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9교회 증가했으며, 버지니아는 무려 56교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위는 지난해에 이어 워싱턴(203)이 동일하게 차지했고, 7위 조지아(196) 8위는 텍사스(189)로 전년도와 7, 8위 순위가 바뀌었다. 9위 메릴랜드(148), 10위 펜실베이니아(119)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80개국에 총 1,308교회 가 리스트업 됐다. 전년도에 비해 2개국 62교회가 추가됐지만 각 나라별 교회 수는 1위 캐나다



다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해외교회 1위는 캐나다로 393교회, 2위는 일본(205), 3위 호주(172), 4위 독일(98), 5위 아르헨티나(57)로 전년도와 동일

한 순위를 나타냈으며, 전년도 7위였던 영국(54)은 지난해 6위 브라질(47)과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내 교단 별로 보면 장로교(개혁신교 포함)가 1,685교회로 약 48%를 차지했으며 19%

를 차지한 침례교(713)가 2위, 3위는 감리교 515교회(13%), 4위는 하나님의성회 및 순복음 계열이 292교회(8%)로 집계됐으며 나사렛 성결교단이 83교회(5%)로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복음주의, 그리스도교회, 독립교단, 초교파, 또 교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무소속도 다수 있었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예년과 동일하게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로 464교회, 2위는 미국교단인 PCUSA 342교회, 3위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265교회로 전년도에 비해 모두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4위는 미국교단인 PCA가 181교회로 나타났다.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91교회와 43교회로 각각 집계됐다. 또 선교교 교단인 C&MA도 90교회로 나타났다.

'2013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는 이외에 기독교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의 리스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록에는 총 6,178개의 리스트가 수록됐다.

지난해 작업을 완료한 '2013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은 현재 미국 전역과 한국에서도 배부 중에 있다.

(유원정 기자)

HAPPY NEW YEAR
2013
새해의 기원

장영춘 목사
(본지 발행인)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오면 무엇인가 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새 것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신 분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주 하나님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러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소서.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의 목은 양금,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 모두 회개와 자복의 눈물로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소서.

새해, 새아침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육신을 단장하기보다 마음을 정결히 씻고 닦아 새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나의 심방에 들어오시어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어 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마음 깊은 데로 물밀듯이 치고 들어오려는 욕심, 시기, 미움의 악한 생각을 물리쳐 주소서.

새해에는 악한 생각보다 선한 생각이 이기게 하소서. 더러운 생각보다 의로운 생각이 앞서게 하소서. 속된 욕망보다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소서. 미움보다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좌절과 절망보다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미 대륙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옛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난과 질병, 차별 없는 평등을 주소서.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사랑, 자유, 진리, 공의의 꽃을 피워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파릇파릇 싹터 나오게 하소서.

2면
2013년 미국 복음주의 "복음" 으로 회귀해야

3면
"신앙심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다!"

5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으로 다시 치유된다!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1)

주제성구: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나이다." (렘 10:6)
"아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

2013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2013년 1월7일 (월) 부터 1월19일 (토)

•시간: 월 ~ 금: 오전5:30am, 토: 오전 6:00am
•장소: 세계비전교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회 (대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을 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기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강사

첫째주: 김영빈 목사 (세계비전교회 담임) 1/7~12 (월~토)
둘째주: 박승규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담임) 1/14~16 (월~수)
박형은 목사 (동양선교교회 담임) 1/17~19 (목~토)



김영빈 목사 박승규 목사 박형은 목사





시론

잘 남길 수 있는 새해 계획



원중훈 목사 (사카고 그레이스교회)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되었다. 다 집했던 신년결심이 한 해 동안 지속되려면 지금이 점검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순간적인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하고, 감동적인 결심은 일시적 충동의 산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송구영신의 외형적 분위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한 해를 시작했다면 이제라도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새해계획은 지난 시간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성찰 없는 지난날의 반복이나 답습으로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자신이 기준되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입증하는 세월을 반복하기만하고 폐쇄된 독선과 자화자찬의 자기 충만으로 살아갈 텐데, 반성 없는 그 자리에 무슨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는가? 반성은 자기를 열어보는 것에서 시작하며, 열어보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썩는다. 자신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의롭게 내세운 명분 뒤에 숨은 부끄러운 동기, 우연처럼 보이는 일회성 사건 뒤에 숨은 회색빛 자기논리를 찾아보아야 한다. 사람 앞에 자신의 모든 내면을 열어 보이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을 증인삼아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보이면 된다. 하나님을 대화상대로 삼아,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면 된다. 충분히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좌충우돌 침범하기 쉽다. 반성 없는 확신이 위험한 것처럼, 성찰 없는 계획은 무모할 뿐이다.

새해계획은 자기에게 합당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반성이 소극적이라면 대안 제시는 매우 적극적일 것이다. 대안 없는 성찰은 진전 없는 행진 같아서, 제자리 걸음에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비난과 비판을 적용하여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비난과 비판은 크게 다르다. 비난은 근거도 주관적이거나 기준은 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변적일 때가 많고, 합리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한다. 그러나 비판은 다르다. 객관적이며 확고한 논리적 근거가 있고 그에서 비롯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비난은 상대를 손가락질하는 파괴적 감정 수준에 머무르지만 비판은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협력하는 건설적 의지수준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성찰은 자기비난과 자기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찌할 것인가?'를 수 백번 묻고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대안을 찾아준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은 지난해의 치열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가장 최선의 대안이며 자기가 자기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새해계획은 가능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일상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가도 자리 잡고 앉았을 계획을 세우다보면 자기가 중심되는 것이 인간이다. 자기가 중심이 된 자아성찰은 일방적인 이기적 자아로 드라이브해 간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수록 공동체중심의 자아 성찰과 공동체중심의 대안이 필요하다.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공동체적 조망 하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이기적 대안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쉽다. 자기 소신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소신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치는 자 많건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성경적 개념-상생과 공존-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도 배려 차원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줘야 한다. 화폭에 담긴 그림의 아름다움이 단순한 점과 선들의 조합에서 시작됨을 생각할 때 이기주의로 흐르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점과 선 자체의 가치보다 연결된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 새해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것이다.

시간은 꼬리 길게 달린 연과 같다. 나를 향해 올 때는 그저 시간일 뿐이지만, 뒤에는 살아간 흔적의 꼬리로 남는다. 다가오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남긴 흔적은 다 다르다. 다른 생각과 다른 자세와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서로 다른 '오늘의 나'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잘 남기기 위해 잘 시작해야 하며, 이미 시작한 것들을 반복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350여일 남았으니 다시 한 번 힘차게 시작해보기를 바란다. 잘 남길 수 있도록.

2013년 미국 복음주의 "복음" 으로 회귀해야

카리스마, 강약점 비교 보도...강점보다 약점 더 많아

지난해 6월 갤럽에서 조사한 미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사상 최저치인 44%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68%와 2001년 60%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추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에서 물론교인인 롬니 후보를 복음주의 진영 전체가 지지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재직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말 복음주의 진영을 뒤흔든 신학적 이슈는 랍 벨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제기된 지옥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다. 이에 대해 마크 갤리는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며 현대 복음주의가 간과하는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어냈다. 바로 오늘날 복음주의가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에 대한 축소주의(reductionism)다. 현대 문화와 세계관이 강요하는 자기만족과 자기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선포하고 따라야 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그 결과 복음의 본질이 주변부로 밀려나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됐으며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대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복음주의는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은 기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카리스마(Charisma) 매거진은 지적하면서, 2013년은 복음주의가 "복음"으로 회귀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merican Church).

1. 강점들

1)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재난을 맞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다. 아이티의 지진에서부터 일본의 쓰나미, 남미에서의 고

교사들은 선교지를 식민주의화하거나 서구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있다.

2. 약점들

구제, 긍정적 사고, 도덕적, 최다 선교사 파송 등 강점 불구 얕박한 번영복음만 설교, 목사가 CEO, 리더스캔들 만연 등 약점

아 사역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의 기아 사역 등을 월드비전이나 사마리탄의 지갑 등이 활동을 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2)최대 기독교 출판국가로 크리스천들에게 방대할 정도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최신 성경 번역이나 크리스천 삶의 어떠한 유행일지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다 운반할 수 있다.

3)우리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미국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에 가까이 있다.

4)약물 중독에서 회복 그리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실 등 많은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5)생명을 존중하고 도덕 중심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먼저 살핀다.

6)1812년부터 선교사들을 지구촌에 가장 많이 보내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교회가 파송하는 선

1)기독교적 표현들은 너무 피상적이고 얕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3,000마일 넓이에 1마일 깊이를 가졌다고 평가된다.

2)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크리스천 리더들의 도덕적 몰락이나 스캔들을 접한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존경받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스캔들 소식을 연일 듣고 있다.

3)번영의 얕박한 복음만을 설교한다. 이는 개인교 노동 윤리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복음도 아니다.

4)잘못된 복음을 지구촌에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5)세상적 문화적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설교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한이나 권능을 주셨다고 선포한다.

6)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는 운동이었고, 그리스에서는 철학이었고, 유럽에서는 문화였던 교회가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다고 평가 받는다.

7)따라서 교회에는 기업 원리들이 들어오게 됐고, 대형교회일수록 담임 목회자는 마치 CEO처럼 군림

고백한 내용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류 문화사에서의 유일한 장소, 곧 죄와 용서, 속박과 자유, 갈등과 평화, 죽음과 삶 같은 궁극적인 신비들을 다루는 결정적인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도 아직

하고 있다.

8)하나님의 도움이나 간섭을 원하지 않는 자력형 크리스천이 됐다.

9)너무 정치적이다. 사회에 예언자적 증거를 하기보다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며, 한마디로 정치 체제에 우리의 영혼을 팔았다.

10)슈퍼스타 설교자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머슴으로 불리우기보다는 군림해 인기에 연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자서전에서

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수수께끼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비틀거리며 걷더라도-지난 50년 동안 거듭해서 경험했듯이-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 불빛을 받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그 별이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며, 죽음과 종말에 이를 때까지 줄곧 빛을 비추어 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에서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1)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에 가입되어 있는분이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2)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경력 5년 이상인 분
- 3) 한국어, 영어 설교가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한글, 영문 이력서(사진포함)
- 2) 신앙고백서와 목회 계획서
- 3)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4) 최근 두 편의 설교 (최소 한편은 동영상)
- 5) 최종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 분과 교회 홈페이지 주소
- 6) 추천서 2인 이상(추천인이 사인하시고 밀봉된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처 및 기한

제 출 처 :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P.O.Box 4069
Sunnyside, NY 11104
문 의 : cbnypc2012@yahoo.com
제출기한 : 2013년 1월 31일

“신앙심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다!”

내셔널포스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장기 종교연구 프로젝트 중간보고 보도

1945년 제2차 대전의 종료와 함께 연합국 측은 '인류 전쟁의 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고, 그 결과 유엔 산하에 문화전문기구로 유네스코(UNESCO)가 창설됐다.

연합국측은 만장일치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본떠 유네스코의 로고를 결정했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구현하는 그리스 문화의 정신이 서양문화의 원천이며, 세계문화의 원류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네스코나 문화학자들은 문화나 문명의 기원에는 반드시 신앙, 즉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과 문명에는 신앙 즉 종교 함수가 있다는 명제는 과학으로 풀어내기에는 항상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사회심리 학자들은 7년 전부터 바로 "종교가 문명의 초석"이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과 설문을 벌여왔고 아직 연구를 마치지 못했지만 신앙심이 문명을 개화시키는데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내셔널포스트(National Post)지는 2013년 신년호 커버스토리로 종교가 바로 문명의 시작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도한다 (Research team looking to prove controversial theory that religion was the 'cornerstone to civilizations').



신적인 하나님관이 중동 지역에서 출몰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유신론이 등장해 인간에게 도덕

동시에 사회심리 학자들을 통해 북아일랜드에서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성을 앞서 실시한 워드 퍼즐과 같은 실험을 통해 측정할 예정이다.

적인 도식과는 신앙이 빚어내는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흐름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연구 팀은 3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잠재의식에는 문명 가능하게 한 원형/종교성 각인 관개시설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종교 도움 있어야

의 피실험자들에게 먼저 다른 내용이 담긴 워드 퍼즐을 풀게 한 다음,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10달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했다.

그 결과 어떤 참여자들은 돈을 나누지 않고 본인들이 챙겼고, 어떤 이들은 5달러만을 나누었는데, 놀라운 점은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워드 퍼즐 풀 사람들의 행태였다. 즉 "영혼",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 등 종교적인 단어가 담긴 퍼즐을 맞춘 사람들 모두가 10달러를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립적 내용이 담긴 퍼즐을 맞춘 그룹에서는 거의 나누는데 인색했다.

따라서 인간의 잠재의식에는 바로 종교성 즉 문명을 가능하게 한 원형이 각인돼있다고, 연구를 주도한 사회 심리학자(Ara Norenzayan)는 해석한다.

학계에서는 종교와 문명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한마디로 과학

적이며 본격적으로 지구촌 오지나 극지를 포함한 구석구석을 돌면서, 종교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화적 테크놀로지"라고 증명한 것을 증명했다. 종교는 고대부터 믿어 온 미신이 아니라 바로 문명의 초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연구 팀이 앞으로 펼쳐갈 종교와 문명과의 함수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종교 연구에 있어 가장 방대한 연구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인류는 항상 종교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정리해보자.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디폴트 종교는 부족 종교였다: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 즉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에 의해서 무작위로 조절돼왔다. 즉 하늘의 신은 밤마다 해를 훔쳤고, 풍요의 신은 여성을 임신하게 했다.

그러나 약 5,000년 전, 새롭고 혁

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은 농업이 바로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즉 농업이라는 단일 과정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시들을 건설하게 하고 복잡한 정치 체계를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명은 농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다수의 인원이 동원돼야만 하고, 전염병과 같은 질병들과 싸워야 하고, 계급간의 갈등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되게 결속시킨 근원적인 힘이 요구된다. 실제로 물을 끌어들이고 배출시키는 관개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연구 팀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을 총동원해 모든 문화 저변에 숨어 있는 종교함수에 대한 정보를 안내서 형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결국 2018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연구 팀은 일종의 백과사전식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즉 누구라도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을 검색하게 되면, 종교 즉 신앙이 어떻게 그 사회를 형성시켰고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게 된다.

마치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특정 단어를 찾으면 단어의 기원에서 유래 그리고 정의와 사용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신앙심들이 어떻게 사회들을 성장시키고, 축소시키고 파괴시키게 됐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지혜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바로 그러한 성경적 진리를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연구 팀은 밝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 기독교인 감소 무슬림/무종교인 증가

텔레그래프, 2011년 인구센서스 결과 통해 영국 종교성향 발표

지난해 말 발표된 영국의 인구센서스 결과 영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2011년 조사의 3,700만 명에서 2011년 3,300만 명으로 감소된 반면, 무슬림은 2011년 150만 명에서 2011년 270만 명으로 늘어났고, 무종교인은 10년 전 8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영국인 4명 중 약 1명은 종교가 없는 셈이다. 영국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런던 북쪽의 노르위치(Norwich)와 런던 남쪽의 브라이튼(Brighton)으로 밝혀졌는데, 이 두 지역의 무종교인 비율은 40%가 넘는다.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단체인 영국휴머니스트협회(British Humanist Association)는 2011년 인구센서스 조사가 실시될 당시 센서스 조사지의 종교 란에 무종교(no religion)라고 표시하지는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인구센서스의 종교 조사는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표시한 방식으로 조사된 것으로, 종교 란에는 기독교 외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 시크교 그리고 기타 종교가 선택 항목으로 기록돼 있었다.

영국의 국교 성공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스(Rowan Williams) 박사는 이번 인구센서스를 통해 기독교인이 감소했다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징조는 없으며,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교는 쇠퇴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인구센서스에서 영국의 인구는 6,310만 명으로 조사돼 2001년보다 4백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9%에 달했는데, 런던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센서스에서 영국인의 80%는 백인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의 87%에서 7% 감소한 수치이다. 아시아계(系) 영국인도 10년 전 250만 명에서 400만 명(6.3%)으로 늘어났다. 영국인의 출생지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인도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거주하는 폴란드계도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는 2001년 조사에 비해 37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55%)은 이민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011년 인구센서스의 종교인의 수치를 계산해보면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52.3%이며, 무슬림 비율은 4.3%, 무종교인의 비율은 22.2%로 나온다. 반면 2010년 개정판 Operation World(세계기도정보)에는 2010년의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59.7%, 무슬림 비율 3.2%, 무종교인 비율 34.5%로 기록됐다.



2013년 미국 북음주의 “복음” 으로 회귀해야

(2면에서 계속) 다가오는 2013년은 세계복음주

의와 미국 북음주의 진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빠

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 안에서 불변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불드리는 것 이외에 교회가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지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귀해야만 할 것이다.

마치 사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2013년도 학생,교수 모집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 통신, 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 음악 학사	고졸 및 동등학력 자
대학원과정(Master) 3년	
기독교 교육석사 종교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신학 석사	대졸 및 동등학력 자
박사과정(Doctor) 2년	
기독교 교육학 박사 목회신학 박사 신학 박사 종교철학 박사	대졸 및 동등학력 자



www.mrtsusa.org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 교수님을 모십니다 ○

2013년도 봄학기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기독교 교육학
한국 교회사
기독교 음악

이력서(Profile) 및 강의 계획서, 강의 CD 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교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무처:(323)932-0788
- 교학처직통:(213)999-1307
- 팩스: (323)622-8376
- 이-메일: mrtsusa@hotmail.com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파트타임(part time) 크리스천?

우리는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나 교회생활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직장생활 따로 하고 신앙생활을 따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모두 신앙생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신앙으로 해야 하고, 교

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실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것도 모두 신앙생활입니다(엡5:22-6:9).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신앙으로 해야 하며, 밥으로 음식값의 20퍼센트 이상을 드리는 것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옷을 구입하는 것도, 겸손한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도, 겸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말을 한 마디 하는 것도 모두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마5:13-16)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골3:22-23).

파트타임(part time)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Lord)가 되시는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풀타임(full time)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주(Lord)가 되시도록 합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여 섬김으로, 내가 일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도록 합니다.

그러하면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로 국한되면서 잃어버린 영역들 곧 정치, 경제, 사회, 예술, 학교, 언론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2세, 3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서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언론계로, 세상 모든 영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그 영역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면, 온 세상이 메시아, 평화의 왕,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사52:7-10).

Part time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full time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로 국한되면서 잃어버린 영역들 곧 정치, 경제, 사회, 예술, 학교, 언론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2세, 3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서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언론계로, 세상 모든 영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그 영역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면, 온 세상이 메시아, 평화의 왕,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사52:7-10).

Part time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full time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푸 / 른 / 초 / 장

김종준 목사 (꽃동산 교회)



개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불의한 길에서 돌아 설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불의한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이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다급할 때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9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 버릴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출 생각을 넣어서 그들을 넘어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에 93%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성공에 93%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쓴잔을 스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늘 승리합니다. 생각한 대로 그 인격과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생각, 미운 생각, 원통한 생각, 분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가난할 때 가난을 원망하지 말고 머리 돌 곳도 없이 사신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배신당해서 억울할 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를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대로 됩니다.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열 명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두 사람은 그들의 생각대로 쫓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었던 열 명의 정탐꾼들은 망했습니다. 차이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로마서 8장 5-6절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학벌일까? 성격일까? 지능지수일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일까? 조상결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실패라는 나락에 떨어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등을 겪는데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거나 불행하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악하게 되는 것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

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말하기를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미움의 생각을 가지면 살인을 저룹니다. 용서의 생각을 가지면 사랑을 거두고 분노의 생각을 가지면 불행을 거두고 기쁨의 생각을 가지면 행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육

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1.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롬8장 5-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 자기교만, 자기욕심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 생각을 갈아넣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넣는 것이 회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사심을 받는다는 말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면 우리 인격 전부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로 있고 하나님의 생각 따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의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충만하여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는 성공의 요인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3 새해 특별 기도성회

| 일시 : 2013년 1월 17일(목, 저녁)~ 1월 24일(목, 저녁) |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빛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으로 다시 치유된다!

CT, 내면치유 후 다시 회귀하는 이들을 위한 긍정의 원리 소개

하나님은 치유를 당신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출15:26). 치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다시 구원으로 그리고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치유는 함께한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변화가 이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을 자신들의 영혼과 정신(생각, 의지, 감정)과 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내적치유를 경험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시 상처의 쓴뿌리를 안고 좌절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즉 구원과 그 완성 사이에 있는 치유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사람들의 치유는 진짜가 아니었나? 그는 치유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믿고 치유 사역을 해나가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나가야 하는가?

크리스천티 두데이(CT)는 내적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사론 루이스(S. L. Lewis)의 글(The Yes and No of Healing: What are we to make of people who experience inner healing and then revert to their old ways?)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해 준다.



내면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린 페인은 “치유의 입재”에서 치유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인을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으나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태로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감작기 깨닫게 된다. “내 자신을 고립시키는 생각에 다시 자리를 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죠. 결국 우리의 우정이 내게는 무척 소중한 다며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야만 했어요. 그렇게 나를 내보이

는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데는

은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이것이 곧 우리 죄와 연약함이라는 부정으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위대한 긍정이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긍정 안에서 살 수 있으며, 바로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신 긍정(the finished Yes)의 증거가 된다. 능력/자만은 약함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입재로 부여받은 정체성 확인이 내면치유책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함 받은 죄 안에 있다. 일단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는다. 그러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기억의 끝(The End of Memory)”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죄지은 자의 고통이 클수록, 고통은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의 정체성에 더욱 깊게 배어든다...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우리는 ‘시간 속에 얼어버린 왜곡된 정체성에 갇힌 채 성장하지 못한다’...그 정도가 덜할지라도, 결국 잘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정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은 자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따라서 더욱 강한 ‘긍정’이 내적 치유에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서도 거부당한 어린 시절로 다시 내던져진다. 예전에 익숙했던 그 얼음장처럼 차갑게 닫힌 마음 상

는 건 정말 소름끼치고 아주 어색한 일이에요. 하지만 말을 꺼내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록 불완전하지만 아주 소중한 관계를 내가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관계는 이제 좋아졌어요. 아마 제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더 돈독해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긍정에 굴복한” 강한 부정의 예를 본다. 치유는 과정이다. 크리스천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얼룩지게 했던 잘못된 것들이 자아의 핵심에서 물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경우에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는 넉넉한 긍정을 부여하시지 않았다는 뜻인가?

바울이 지녔던 ‘육체의 가시’를 보자. 그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

다 이유가 있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7-9).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닌 연약함이나 그 연약함이 치유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내 안에 불길처럼 타오르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입재다. 이 입재로 우리는 새로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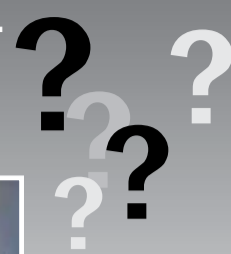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부침이 심한 치유 경험에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는다. 치유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위대한 긍정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부정을 다시 드러내고 치유의 경험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근본적인 긍정을 바꿔놓지는 못한다.

이것이 사실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긍정이 가장 무시무시한 곳, 부정이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곳까지 뚫고 들어갈 능력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치유의 여정에서 우리의 타락과 은혜,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모두를 견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입재와 성품이 그 위대한 긍정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한국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정치나 종교나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의 진정한 자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성에서 장 전도사

A: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진정한 자질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거룩과 순결입니다(Holiness, Purity). 보통 지도력이라 한다면 오히려 하기 쉬운 것이 어떤 개인의 능력, 즉 카리스마나 재능, 학력, 경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도력을 말할 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attitude)를 바로 가져야 함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룩과 지도력을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지도력의 요소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룩을 상실한다면 영적권위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창49:3-4절의 르우벤이 좋은 예입니다. 아홉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의 장래에 대하여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위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은 리더십이 있었고 재능이나 모든 면에 탁월하여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네가 물의 끓음 같았고 이전에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창35:22). 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거룩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

거룩과순결, 뚫고 나가는 섬김의 리더십

이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이 거룩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유능하게 쓰이던 부흥사나 목회자가 7계 문제에 걸려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둘째, 역경을 Break-through 즉 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IQ가 좋아야 하고 요즘은 EQ가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IQ, EQ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 더 AQ(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가 좋아야 합니다. 역경을 잘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즉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생의 역경에 부딪치면 대개 3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합니다. 1) Quitter형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에 부딪치면 그냥포기하고 도망가버리는 사람 영어로 Quitter,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2)Camper형이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문제는 넘어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유지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어로 캠퍼, 텐트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캠퍼 유형이 60-70%라고 합니다. 3)Climber, 역경이라는 산을 만나면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 그 산을 정복해 버리고야마는 사람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줄리 앤드류스 역인 마리아가 수녀원에서 수녀후보생으로 있다가 폰트랩 대령의 자녀를 가정교사로 가서 일하다가 폰트랩 대령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숨길 수 없어 도망을 쳐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오자 수녀원 원장이 말합니다.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고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지수도 중요하나 인생이란 어쨌든 수많은 역경들이 있기에 이런 역경을 지성과 감성을 총동원하며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자가 리더십의 진정한 자질입니다.

셋째,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국민과 교인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교훈: 너, 하나님의 사랑아,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라!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 미주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의 특징 ★

- *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 * 부흥하는 기독교미주성결교회가 설립/운영하는 교단 신학대학
- * 졸업 후 절차에 따라 남녀 목회자 안수하며, 선교사와 전문상담가 등으로 사역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및 ABHE 회원 가입 (Candidate Institution)
-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 성적과 자격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
- * 편리한 위치에 현대식 도서관과 휴게실 등 좋은 학습환경



학위과정

학 부 : 신학사 (B.Th.)

대학원 :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석사(M.M)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 세례를 받은 자로서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원서접수 : 1월 20일 까지
3. 입학서류 : 본교 소정 양식 (웹참조)
4.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5. 개 강 : 1월 28일

겨울학기 집중강의 (2013년 1월 7일~ 25일)

총장 : 류종길 명예총장 : 이정근 이사장 : 조종근

Tel : 323-643-0301 / Fax :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www.aeui.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와 네팔의 문다 산탈(MUNDA SANTAL)



인도 북동부와 네팔의 문다-산탈족은 9개의 다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인도의 비하르, 서부 벵갈, 오리사 주에 분포되었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비하르 주 남부의 초타나그푸르 고원 산지에서 살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평야에서 산다. 이 지역 외에도 인도 전역에서 농사와 공장노동자로서 널리 퍼져 있다.

2개 종족인 주안고, 가다바족은 인도 남부 벵갈만 해안 인근에 살고 있다. 이들은 오스트로-아시아 어계에 속하는 문다어(문다-산탈족의 고유 언어)를 사용한다. 이들 부족 문화는 산업화와 새로운 교통 연락, 부족의 복지계획,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같은 외부 영향의 충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삶의 모습
문다-산탈 부족들의 기원과 관련된 전통은 불확실하지만 원래 초타나그푸르의 밀밭 지대는 여러 토착 부족들의 족장들의 통치를 받았다. 다카 평야 지대에 영국의 식민정부가 세워졌다. 1831-32년에 문다족의 반란이 있었고 1855-1858년에 산탈족의 봉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9개 문다-산탈족 가운데 단

지 부미즈족에게만 지도자가 있으며 그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문다-산탈족의 80%가 생계를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농촌 가정은 방직업을 가내수공업 또는 마을 수공업으로 하고 있다. 사냥과 채집으로 불충분한 농업소득을 보충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부는 밀밭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동 경작은 제한되었다. 또 관개지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다른 소득원이 개발됐는데, 북동부의 차 농장이나 제철공장에서 일하거나 힌두교 지주들의 일용 노동자로 일하는 것 정도다. 초타나그푸르 고원은 인도에서 관광이 가장 풍부한 지대이므로 문다-산탈족의 일부는 관광에서 일한다. 남자 여자를 할 것 없이 가족을 위해 적당한 수입을 벌기 위해 일한다.

부족들 중 극소수는 무역을 하며, 일부는 전통적인 장인이거나 전문 직 종사자이다. 그러한 2개의 부족으로는 코다와 가다바족이 있는데, 코다족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고

가다바족은 벽화를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힌두의 장인들이 쓸 물건 대부분을 대준다. 매우 열리는 장이 중요한 경제역할을 한다. 일부 마힐리 사람들은 읍내 시장에 자기들이 만든 대나무 바구니 제품을 내다판다. 문다-산탈족이 사는 곳은 대개 강의 계곡과 밀밭을 베어낸 침식지대, 광업과 산업 지대다. 사람들 대다수는 웅기종기 도시 마을이나 길 하나인 마을에서 산다.

이들은 공동 조상을 둔 씨족으로 나뉘어진다. 씨족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종종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하위부족에서는 부족 내의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도록 허용한다. 또 주안고족을 제외한 모든 문다-산탈족에는 툴쿠리아(dhukuria)라는 총각들의 공동 거주지도 있다.

문다-산탈족에게는 풍부한 예술적 유산이 있는데, 특히 음악과 춤에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부족은 코다와 가다바족이 있는데, 코다족은 무도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마을 사제가 예배를 드리기

한다. 마을은 "추장"에 의해 운영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차야트(panchayat)라는 종교학자 또는 승려가 자문을 한다. 부족 내의 대부분의 갈등은 토지 소유권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이다.

신앙
문다-산탈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 구별된 정체성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이 힌두교도이며 그 밖의 사람들은 전통종교를 지키고 있다.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의 "그들 마음에 있는 영원"(Eternity In Their Hearts)에서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고대신인 "타쿠르 지우"(Thakur Jiu, 진짜 신)를 알게 된다. 그들이 "마란 부루"(Maran Buru)라는 큰 산맥의 신령을 무서워해 타쿠르 지우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조상이 현재의 이 땅으로 이주해오면서 마란 부루와 맹세를 하고, 위령제와 마술, 태양 숭배를 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의 최고 신은 태양신이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신 외에 또 힌두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였다. 힌두의 마을 사제는 의식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자이며, 많은 힌두 축제를 지킨다. 그들은 전능한 창조자와 "어머니 대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가리아, 부미즈, 가다바, 주안고족 등 일부 부족들은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소수의 부족이 선교단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직 1% 채 안된다. 문다-산탈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을 회의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이기로운 후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영접한다. 이 소중한 부족들은 추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참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3주 만에 수업 재개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한 코네티컷 주의 샌디훅 초등학교가 사건 발생 3주 만에 수업을 재개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총기 난사 당시 생존한 학생들이 3일부터 뉴타운 인근의 먼로 지역에 있는 초크힐 중학교로 다시 등교했다고 밝혔다. 재닛 로빈슨 뉴타운 교육감은 이 중학교의 건물 일부를 샌디훅 초등학교 건물로 사용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바뀐 환경에 낯설지 않도록 최대한 이전과 비슷하게 꾸몄다고 설명했다.



샌디훅 초등학교 측은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돈 홀스프링 교장의 빈자리를 은퇴한 도나 페이지 전 교장이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 폐쇄회로(CC)TV와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먼로 교육 당국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애덤 랜자가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난입, 총기를 난사해 교장과 교사 6명과 아이 20명을 죽인 지 3주 만이다.

뉴타운 당국은 참사가 일어난 원래의 샌디훅 초등학교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참사 직후 생존 학생 가족들과 상담을 했던 줄리언 포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아이들은 각자 처한 환경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미국, 재정 절벽보다 영적 절벽이 훨씬 심각"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재정 절벽(fiscal cliff)보다 영적 절벽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했다. 3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는 최

근 공개서한을 통해 "언론들은 은둔 재정 절벽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영적·도덕적 절벽이 나라에 끼치는 해악에 비하면 별 것 아닌 문제"라며 "죄에 찌든(sin-sickened) 미국은 재정 절벽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절벽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뜻한다. 최근 미국 여야 정치권은 재정 절벽 방지를 위한 협상에 매달리다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동성결혼 증가와 마리아나 합법화, 음란물로 넘쳐나는 TV 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11월 주별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마리아나 소지, 메인·메릴랜드·워싱턴 주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레이엄 목사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다면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대왕국이 므낫세 치하에서 죄악으로 가득했으나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율법을 발견한 뒤 나라를 회개의 길로 이끈 것에 주목했다.

미 개신교인이 일상서 겪는 최대 유혹은?

미국 개신교인들은 일상에서의 최대 유혹으로 '과식·탐식'을 꼽았다. 미 기독교 전문 리서치업체 바나그룹은 사람들의 새해 결심에서 단골 타파 대상으로 등장하는 각종 유혹·죄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미국 전역의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5%, 개신교도의 66%, 천주교도의 44%가 '과식·탐식'을 자주 맛따뜨리는 유혹



으로 지목했다.

개신교도는 천주교도에 비해 일과 관련된 유혹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도의 57%가 '일 미루기'를, 40%가 '계를 피우기·일 열심히 안 하기'(40%)를 유혹으로 꼽은 반면 이들 항목을 지목한 천주교도는 각각 51%와 28%에 그쳤다. 바나그룹 측은 "개신교인에게 종교적 직업윤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미디어 기술 관련 유혹도 새롭게 등장했다. 응답자의 44%가 '지나친 미디어 탐닉'을, 11%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분노 표현'을 꼽은 것. 인터넷·스마트폰·비디오게임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과 온라인 욕설·악플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과소비(44%), 타인 험담(26%), 질투(24%), 음란물 보기(18%), 거짓말·부정행위(12%), 과음·약물남용(11%) 등도 일상적인 유혹으로 선정됐다.

이런 유혹과 죄악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18%)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모든 학교 종교교육 의무화

러시아의 모든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의무화된다. 7일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학교가 종교의 기초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달 말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해 20개 지역에서 학생 30만명을 대상으로 종교교육 의무과정을 시범 실시했다. 동방정교회, 이슬람, 유대교, 불교, 세속윤리, 세계종교 등 6개 과목 중 하나를 골라 학습하는 방식이다. 종교교육 의무화에 대해 현지 언론은 "러시아정교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정교회는 동방정교회의 핵심 분파이며, 러시아 국민의

70% 이상이 정교회 신자다.

러시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세속윤리(42%), 동방정교회(30%), 세계종교(18%), 이슬람(9%), 불교·유대교(1%) 순이다. 러시아 정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리스도교인과 무슬림, 유대교인, 비종교인의 차이에 대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방정교회의 크리스마스인 7일 러시아 전역에서는 성탄절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러시아와 세르비아, 조지아(러시아령 그루지아) 등 동방정교회 국가들은 그레고리력 대신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개신교·천주교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삼고 있다.

하버드신학리뷰 '예수 결혼설' 논문 게재 연기

캐런 킴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의 '예수 결혼설' 관련 논문 게재가 연기됐다. 킴 교수는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 "'예수의 아내'라고 명명한 파피루스 조각에 대한 실험과 조사가 끝나지 않아 하버드 신학리뷰 1월호에 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킴 교수는 지난해 9월 국제 학술대회에서 문제의 파피루스 조각을 발표해 성서고고학계에 논란의 불을 지폈다. 당시 킴 교수는 이 파피루스에 4세기 고대 이집트의 콥트어로 "예수께서 그들(제자)에게 말했다. 내 아내...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적힌 대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서 조각이 '예수가 실제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결혼했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킴 교수는 파피루스 조각을 발표한 뒤 기독교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껴 논문 게재를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킴 교수의 파피루스에 대해 기독교 정통 교회사학자들은 "고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 결혼설 관련 문서는 그동안 200개 이상 발견됐다"며 "신빙성이 없어 역사적 사실을 바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ATS 인준 쉐퍼드 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홍광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 미래**
 - 미군 군복 장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2 높은수준**
 - ATS 인준 (Candidacy)목회학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Digital Arts, 음악대, 간호대 복수전공을 통한 Crossover 전문인 양성
- 3 편안한 교육**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영어강의 / 통역강의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주체이자 20세기의 성경적 재지향론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회 성장, 재지향론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이며, 그의 책 '제1인칭'이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웨스턴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회성장, 재지향론 분야에서 재차들을 강의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 전향과 내적 치유의 새파란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자서전은 깊은 상상을 자유로이 하는 하나뿐, 사적인 영을 대학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능력 기쁨과 힘이 각자에게 흘러, 세계적인 평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쉐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치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서 한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잭 웨이모드, 빌 브라이트 박사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운동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전통)을 인도하고 선교의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문화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류도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전도', '사람의 기쁨부름', '변혁의 열매' 등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 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1)

본지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2013년에는 이스라엘에서 개최된다. 2013년 4월 9일(화)부터 종래와 같이 3박4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12일(금) 오전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가 시작된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부터 매 호마다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예수님의 발자취'를 소개하며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현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이 원고는 동부개혁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2012년 가을학기 특강 "성경의 역사와 지리" (강의자 김주경 목사)를 수강한 학생들의 연구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했음을 밝힌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애독을 바란다. [편집자주]

성경지리는 성경 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형지리, 역사지리, 신학적 지리로 구분된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시정각자료가 되는 셈이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1) 고대(4,000년 전) 근동(영국 기준)과 애굽의 문명의 교량적 위치 2) 사막과 바다의 중간지대 3) 홍해, 지중해, 흑해, 카스피안해, 페르시아만 5대 바다의 중심지 4) 강들의 중간지역(유브라데스 2,700km, 티그리스 1,900km, 나일강 6,632km) 5)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의 교차점으로 볼 수 있다.

성경적 근거는 에스겔5:5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신4:31, 신28:58, 68, 대하36:15-20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개관

1. 명칭
 - 1)가나안=보라색, 낮은 땅(창10:19, 민34:2)
 - 2)이스라엘(창32:28, 창35:10)
 - 3)유대(다), 시온(Zion)
 - 4)시리아(Roman province of

- Syria palestine)
 5)팔레스타인(창21:32)
 6)①약속의 땅(창12:7) ②젖과 꿀이 흐르는 땅(출3:8) ③이스라엘 땅(삼상13:19) ④이스라엘 자손의 땅(수11:22)
 7)①거룩한 땅(수2:12) ②아름다운 땅(겔20:6, 15)

2. 경계

- 1)동(요단계곡/시리아 사막)
- 2)서(지중해)
- 3)남(남방/네게브)
- 4)북(렘몬산 2,814m)

* 성경적 근거

민 34:1-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산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열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뎀 언덕 남편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경계는 대해가 경계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고 호르산

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간넬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열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3. 이스라엘 지형/지역 구분 (240km x 75km, 420km)
 *4 수직지역 분할(n/s longitudinal zone)

- 1)해안평야(The coastal Plain)
 해안평야의 경계는 남쪽의 애굽강에서 북쪽의 로쉬-하니크라 혹은 두로의 사다리까지 이르는 약



300km 거리의 지역으로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날 2/3의 성지인구가 거주하는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서 중앙산지의 석회암이 풍화된 '테라로사'(붉은 땅)가 빗물에 씻겨 내려와서 비옥한 충적토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은 뿐 아니라 산지에서 내려오는 강들로 인하여 풍부한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은 좋은 농경지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사룬평야와 같은 쓸모

없는 늪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세계의 양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벨론과 애굽을 육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가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형적인 특징이 해안산이 내륙의 산지와 평행선을 이루는 일차해안이 아니라 산지에서 내려오는 강들로 인하여 풍부한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은 좋은 농경지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사룬평야와 같은 쓸모

발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게다가 배를 타고 이 땅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낮으로부터 멀어지는 줄로 생각했다(요나서).

또한 지정적으로 두개의 산인 지중해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갈멜산과 로쉬-하니크라와 세 개의 인 갈멜산 아라비아의 약어강, 아라비아에서 발원하여 음파 근처를 흐르는 아르코강, 그리고 해안 평야의 남쪽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애굽강에 의하여 약고평야, 들평야, 사룬평야, 블레셋평야의 네 개의 평야로 구분된다.

기후를 살펴보면 이집트의 간기아열대 기후와 북쪽 레바논의 습기아열대 기후가 교차되는 지역이므로 서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짐을 볼 수 있고, 강수량과 더불어 이슬이 내리는 날수가 연중 200일이 넘으며, 이 이슬비는 이스라엘 여름철의 농작물 작황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를 살펴보면 바다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항구의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하지만 음파나 도르 등은 고대로부터 몰타 수송 및 여행객들의 해상교통의 편이 제공돼 아스클론과 아스돗은 어업이 발달했다. 소규모 절인 고기 수송로 유명했으며 이 지역 해안의 조개껍질에서 두루의 자주색 염료로 불리는 염료가 채취되는데 그 영향으로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옷감 직조업이 발달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해안을 따라 발달한 모래 언덕으로 인해 농업이 불가능했지만 모래 언덕과 산지 사이사이에 비옥한 충적토 지역이 형성됐다. 블레셋 평야는 곡식 생산에 적합하지만 사룬평야의 경우 많은 늪지대와 울창한 삼림으로 농업의 발달이 어려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

가정사역 칼럼

행복한 자녀 양육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많은 이민가정들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이민을 결정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사실 미국의 공교육도 예전 같지 않아서(지나친 성개방 교육과 동성애 교육 등), 이제 앞으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야 하겠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민 결과, 공교육 환경은 한국보다 나야졌을지 모르지만 부모자녀의 관계는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내 자녀가 바로 선교지다. 왜냐하면 말과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힘든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엔 몇 회에 걸쳐서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며 함께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자녀 양육의 비결-1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나는 인생은 없고 하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태

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향한 자녀양육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7번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 기회를 통해 자녀의 인생길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축복의 기회인 수태(생명의 잉태)에 대해 다루어 보겠

습니다. 전도서 3:11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마침내,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이뤄지든, 남몰래 은밀한 가운데 이뤄지든, 여하튼 두 남자가 결합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에게서는 정자가 배출되어 여성의 난자에게 접근합니다. 이때 두 생명의 씨앗이 만나서 생명을 이루는 확률은 수억분의 일입니다. 보통 건강한 남성이 일회 사정할 때 2-3억 개의 정자가 배출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비해 여성의 난자는 한 달에 한번, 그것도 건강한 여성일 경우 난자가 배출되는데 달랑 한 개, 그리고 며칠 동안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난자는 여성의 태아시기부터 난소에서 만들어지며 사춘기가 되면 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씨앗이 만나서 생명이 형성되는 순간 대영백과사전 450권 분량의 유전자(DNA) 정보가 오고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몸 전체는 거의 3조 개의 세포들이 연합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 세포들은 우리들의 일생동안 성장-변화-재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70조개의 세포들로 증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3만개, 비행기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300만개, 로켓을 구성하는 부품이 거의 600만개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이며 복잡미묘한 존재 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DNA

달에 한번, 그것도 건강한 여성일 경우 난자가 배출되는데 달랑 한 개, 그리고 며칠 동안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난자는 여성의 태아시기부터 난소에서 만들어지며 사춘기가 되면 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씨앗이 만나서 생명이 형성되는 순간 대영백과사전 450권 분량의 유전자(DNA) 정보가 오고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몸 전체는 거의 3조 개의 세포들이 연합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 세포들은 우리들의 일생동안 성장-변화-재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70조개의 세포들로 증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3만개, 비행기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300만개, 로켓을 구성하는 부품이 거의 600만개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이며 복잡미묘한 존재 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DNA

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백 수천의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아이의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의 색깔, 눈동자의 색깔까지 또한 임팩, 두뇌(지능지수)를 비롯하여 감성지수(EQ), 사회생활을 위한 관계지수(SQ), 각양의 타고난 재능(Talents) 등,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적인 모습 이라기보다 가능성의 씨앗으로 들어가 있어서 적절한 환경과 사랑의 돌봄이 있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가진 건강한 난자와 정자의 DNA가 만나질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 결합을 하기 훨씬 전부터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몸과 마음의 인격 수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사 2권:다~웃 3권:웃가~소위 4권:소유~오솔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대결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성구를 이해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미주판 2013 Immanuel 다량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미주전용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 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하이움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	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Medium Size) 다량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
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Large Size) 다량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 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0. 시간 체계의 기원

'해'라고 불리는 '태양'과 '1년'이란 '기간'을 똑같이 해로 부르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성경도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

1. 시간의 기원

성경은 최초의 물질인 지구가 창조 될 때 공간과 더불어 맨 처음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시간의 시작인 태초가 공간(천)과 물질(지, the earth)과 함께 시작했다. 시간이 존재한 후로 다른 두 가지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시간도 최초의 물질인 지구와 동시에 창조된 창조물이다(그러므로 창조자는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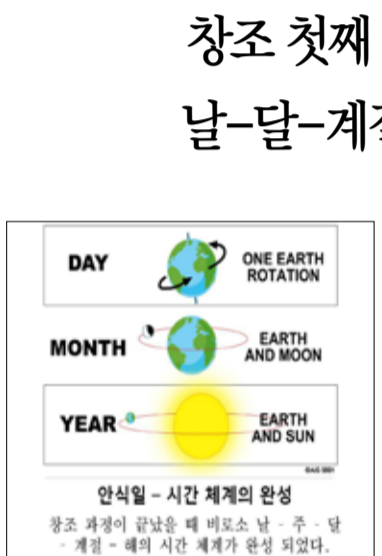
맨 처음에는 지구가 유일한 물질이었다. 그러므로 시간은 맨 처음 창조물질인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맨 처음 단위를 날(day, 히브리어로 옴)이라고 하셨다(창1:5). 즉 지구가 자전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으로 맨 처음 시간의 단위로 삼으셨다. 그 시간 단위인 하루는 지금도 유효하다.

2. 왜 짧은 지구인가?

성경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분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를 꼭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저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짧은 지구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지구의 나이같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교과서나 TV 등에서 보고 배운 지구의 나이 45억 년, 우주의 나이 수백억 년이 깔려 있다. 왜 짧은 지구가 중요할까?

거짓말이나 동성행위는 죄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거짓말이나 동성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성경에 그것들이 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되었다



는 진화를 믿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수십억 년의 긴 시간이나 진화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역시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성경에 대한 의심이 교회의 쇠퇴를 가져오고 말았다.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의 쇠퇴는 진화론과 수십억 년을 받아들여 성경이 옳다면 그대로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고 가르친 것이 문제였다. 엄밀하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믿음만한 책이 아니라 메시지가 예배당 문을 닫게 한 것이다. 현재 성경을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질문이 바로 지구의 나이로 밝혀졌다(Ham & Beemer, Already Gone, 2009). 그러므로 '짧은 지구'에 대한 확신은 성경을 변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은 세속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백억 혹은 수십억 년은, 측정된 값이 아니며,

확신할 수 없고 창조를 거부한 믿음(가정)을 근거로 계산 된 값이란 사실이다. 더구나 일반에 소개되지 않을 뿐이지 우주와 지구가 아주 젊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아주 오래 되었다는 증거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믿음에 동조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은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도 않다.

3. 창조 4일째의 시간 체계

'날(옴)'이란 단어는 창조 첫째 날에 이미 등장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00날(옴)이라"고 창조 전 과정을 거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된다. 그런데 날(옴)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처럼 "00날"처럼 숫자와 함께 쓰인 경우가, 창세기 1장을 제외하고, 410번 있는데 예외 없이 100% 24시간 하루를 의미하고 있다. "아침"과 "저녁"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38회가 있는데 이 경우도 100%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 또 단어 분석을 통해 창세기 1장은 시가 아니라 역사기술이란 것을 확인할 수

나님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읽었을 때 이해하는 젊은지구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창세기 1장 14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은 창조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도 창조가 마치기 전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창조 첫째 날에 하루(옴)의 단위가 만들어졌을지라도 달, 계절, 해 등의 시간 체계는 창조 4일째 태양과 달과 별(은하)들이 만들어졌을 때 형성되었으므로, 창조 4일까지는 날-달-계절-해의 체계까지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의 체계는 날-달-계절-해가 전부가 아니고, 창조가 끝났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따라서 창조 3일째까지의 하루도 오늘날의 24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 성경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

창조 첫째 날 하루 제정, 넷째 날 천체들 창조 날-달-계절-해의 천문학적 시간체계 이뤄져

있다. 그러므로 "00날"과 "아침"과 "저녁"이 동시에 사용된 창조 주간의 각 날(옴)은 오늘날의 하루와 똑같은 실제 역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화를 믿지 않고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랜 지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구절은 창세기 1장 14절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구절에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날(day, 옴)과 해(year)는 창조 4일째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그 이전까지의 날들은 지금의 수십억 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속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긴 시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근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막10:6)라고 하셨다. 만약 창조 주간의 첫 3일이 수십억 년의 기간이었다면, 수십억 년의 창조 과정이 거의 다 지난 다음 역사 맨 끝(6000년은 45억년의 75만 분의 1에 해당하므로 아담의 창조는 존재했던 역사의 맨 끝이 된다)에 사람이 창조되는 꼴이다. 그렇다면 "창조 때로부터"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수십억 년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

4. 안식일-시간 체계의 완성

안식일은 젊은지구의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창조(그리고 창조자)를 기억하려는 계명이다.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했다. 6일 창조가 사실이 아니어도 6일 동안 창조 하셨다고 말하는 여기에 근거해 안식일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였다면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어버린다.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 그 하루를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설명한다면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상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더욱 믿지 못할 책이 되어버린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하루(옴, day)를 제정하시고 창조 넷째 날 천체들을 창조 하심으로써 날-달-계절-해의 천문학적 시간 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심으로써 디더 완전한 시간체계인 날-주-달-계절-해의 시간체계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14)-지혜의 리더십

현대는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의 정보를 작은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도 손안에서 접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클릭 하나로 지식의 홍수 속에 거하게 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한계는 지식의 저편에 공존하는 지혜의 부족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고체폭약인 다이내마이트, 젤리나이트를 발명해 채굴산업을 비롯한 건설산업의 진보를 가져오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품이 전쟁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라뮴의 발견자 퀴리부인은 폴란드 출신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며 여성으로서 최초 노벨 수상자였지만 과도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악성 빈혈로 죽었습니다. 당시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과학과 기술과 경험으로 쌓여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지식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의 성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움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양은 적을지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교육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주장하면서 가장 상위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달리고 또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지식만 쌓일 뿐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노력이라면 허무해지고 우울해 집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의 성품을 소유한 행복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혜는 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경청함으로써 지혜가 생깁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주의의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집중하여 듣는다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는 태도만 있어도 지혜가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관찰하여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지혜를 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막힌 답을 허물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힘이 바로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결국 세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즐겁게 배우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을 키우는 목표로 교육이라는 키포를 잡아 가야 하겠습니다.

Youth

교육전도사 청빙

Required Qualifications

- 정규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Be currently enrolled in seminary or have completed it
- 최소한 1년 이상의 Youth 사역 경험이 있는 분
At least 1year of Youth ministry experience
- 영어설교 하시는 분
Fluent English speaking

Application Requirements

- 이력서 (Resume)
-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보내실 곳: lasolidrock@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Solid Rock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모나리자

스킨 케어

년말연시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섬김과 헌신 통해 꿈과 희망 심어주길”

남가주교계 및 사회 지도자 신년조찬기도회

제2회 남가주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신년조찬기도회가 3일 오전 7시 30분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신년조찬기도회는 남가주교협 직전회장 변영의 목사(벨렐장로교회 담임)가 환영사,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변영의 목사는 환영사에서 “남가주 교계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 모든 동포 사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전도서 4:12의 말씀을 통해 “동포단체와 교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최고의 힘은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각자의 사명을 잊지 말고 협력하여 사랑과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2013년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신연성 LA 총영사, 배우한 LA 한인회장, Eric Garcetti LA 시의원, Tina Nieto 올림픽경찰서장 등도 참석해 교계와 사회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희망의 새날을 열어가길 것을 다짐했다.

특히 행사 중 특별 기도시간을 갖고 1. 교계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황의정 목사 인도), 2. 교포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김성민 목사 인도), 3. 미국 신앙과 경제회복을 위해(민경명 목사 인도) 함께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성서화분부 대표회장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남가주교계 및 사회 지도자 신년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시 당회장)의 축도와 남가주한인교회 회장인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 담임)의 식사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94명에게 총 158,600달러 지급 201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201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지난해 27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과 밀알장애인장학복지위원회(장학위원장 윤자근 이사)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수여식은 미주 장애인장학생 14명(1명당 3,600달러), 근로복지생 7명(1명당 3,600달러), 꿈나무장학생 33명(1명당 1,000달러), 한국장애인장학생 10명(1명당 1,000달러), 제3국장학생 10명(1명당 1,000달러), 장애인선교 사역자 육성장학금 10명(1명당 2,000달러), 긴급추가지원 10명

(1명당 1,000달러) 등 94명에게 총 158,600달러가 지급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 찬양팀(인도 강경원 집사)의 찬양인도와 심상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은 유 환 장로(실행이사)의 설교, 임탁순 장로(행사위원장)의 격려사 후 장학금수여식으로 이어졌다.

이어 정효한 형제가 장학생 대표로 인사했으며 마가렛이 특송을, 이영선 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한 후 김영길 목사(미주 밀알선교단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한 이민법 세미나와 세금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은 이민법 세미나를 강의하는 이경희 변호사, 세금보고에 대하여 강의하는 전영제 공인회계사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 주최 세미나 ‘궁금한 이민법 물어보세요’ ‘목회자 세금 물어보세요’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는 동문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법과 세금관련에 대한 세미나를 7일 오전 11시부터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학장 크로레타 비니 박사)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가 ‘궁금한 이민법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전영제 회계사가 ‘목회자 세금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이민법은 자주 변화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취업4순위인 R비자의 문호가 까다로워져 2순위인 EB2비자를 선호했다.

그러나 최근 EB2의 문호가 우선일자 도입이 되는 등 변수가 생겼다. 특히 미국의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전체 이민법 쿼터제에 변수가 생겼다. 현재 연간 40만개의 영주권 발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특정국가에서 7%이상 영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쿼터제가 시행됐다. 7%시행은 특정국가에서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기에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정치적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경제 한파로 인해 이러한 룰을 지켜낼 여력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상정한 국가경쟁력 법안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 따르면 이러한 7%룰을 철폐해 경제회복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영주권발급신청을 한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의 취업이민자들의 우선일자에 밀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해당교회에 실사관이 파견 나왔을 때 영주권 신청서류에 기입된 것과 실제 사역현장에서의 사역내용과 달라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런 경우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서류에 기입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불이익에 처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신청이 거부된 케이스 중에는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신청 자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한 후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민국과 변호사에게 변경내용을 즉각 알려야 한다. 또한 영주권 및 종교비자 심사에서 거부됐을 경우 교회에서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 항소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영제 공인회계사는 “과거 세금보고 시 소득과 세금보고내용이 차이 발생하면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3년간의 추세를 보면 불경기 여파로 인해 조금만 틀리게 보고를 해도 패널티를 내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계사는 “담임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경우 세금보고 시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맨들처럼 세금신고서를 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교회는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11면으로 계속)

목상칼럼

여승훈 목사 | (휴스턴 사랑의교회)



“시작도 그리스도, 과정도 그리스도, 목표도 그리스도”

이제 2013년이라는 새로운 시계가 시작되었다. 2012년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의 흐름에 별 감각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특별한 행복 때문이 아닐까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뿐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속에서도 세상의 환난과 온갖

좌악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힘 즉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 현대 사회는 맛있는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느 음식을 먹어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현대인들이 배고파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말이다. 영적 굶주림에 지쳐서 방향 잃고 우울한 내날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영적 굶주림에 대한 당신의 대책은 무엇인가?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전 가졌던 뛰어난 학문과 가문의 배경과 종교적 열심이 자신의 영적 허기짐을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 고백한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이 허기짐을 채워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확실히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하고 탁월하고 충분한 가치와 부유함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넓이로 길이로 높이로 깊이로 더욱더 알아가라고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국의 희열을 맛보고 천상의 춤을 추게 된다.

청교도 신학자 존오웬의 탁월한 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는 24페이지를 할애하고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는 182페이지를 할애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는 52페이지를 할애했다.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에 관해 월등히 지면할애를 했다는 것이 좀 흥미롭지 않은가? 이것이 존 오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교도 신학자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들이었다. 삼

위일체 가운데 특별히 제 2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성경전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고 있다.

새롭게 한해를 시작하는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로 분주해진다. 이런 분주한 생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모든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 가지 생각 즉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에게로 방향을 잡아보라. 새로운 날은 달력이 가리키는 날짜로 결정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새로운 날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새로운 한해 새로운 분의 날이 왔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지 못

한다면 그날은 아무런 새로운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력에 있는 새로운 날이 결코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2013년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뛰어와야겠다 고 각오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새로운 각오가 당위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013년의 새해가 새로운 것이고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사고 조직에서부터 영혼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조종이 되게 하라.

이 길만이 2013년 한해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이메일: newson6364@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뉴욕갯세미나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464-2295, (718)58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inachurch.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os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민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3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nchurch.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nchurch.org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o.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이민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 BM&EM: 오후 3:00 7부부흥예배: 저녁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주 주, 3주)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and.com Tel: (516)333-7757, 757, Fax: (516)746-4084 150 Elston Ave, Westbury, NY 11590		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전 5:25, (5:15)토) Tel: (973)694-3880, 포트리: (973)694-3880 491 Alps Rd, Wayne, NJ 07470 주일학교: 오후 2:00 포트리: 430 Main St, Torr, NJ 07024		여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899-8309, Fax: (718)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태열 1부 기도회: 오전 9:00 2부 기도회: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45 EM 영어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32)396-0444, 포트리: (908)518-0934 466 W. Grand Ave, Rockaway, NJ 07065 E-mail: Leontarak@gmail.com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Flondora Rd, Manhasset, NY 110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영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퀸즈인민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NCF 예배: 오후 1:30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wesnesch.com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5 E-mail: revpapak@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derado SP CEP 01505-010 www.kapco.org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아침 7: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rkim@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기사판



총신동문회 신년하례회 및 총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부지역 동문회(회장 전덕영 목사) 2013년 신년 하례회 및 총회가 1월 14일(월) 오전 11시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50달러.

▲문의: (508)397-1550/회장, (917)710-6264/서기

퀸즈장로교회 2013년 제직원 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3년 제직원 수련회가 1월 10일(목)부터 13일(주)까지 본 교회당에서 저녁 8시에 열린다. 주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이며 강사는 이영섭 목사(볼티모어장로교회 담임).

▲문의: (718)886-4040

KAPC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동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2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필라델피아 하워드 존슨 인에서 열린다. 주 강사는 장영춘 목사(이번 기도회는 뉴욕노회가 준비한다).

▲문의: (201)773-8059

새해맞이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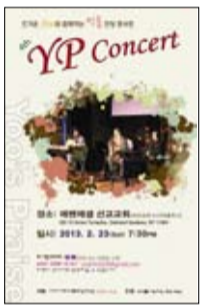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1월 7일부터 26일까지 새해맞이 성경통독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동 교회는 지난 2일 저녁부터 나흘 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새해맞이 신년축복 성회를 열었다. 강사는 동 교회 부목사였던 안상준 목사(볼티모어 시온장로교회 담임).

▲문의: (718)279-2757

제 4회 YP 콘서트

'뜨거운 3형제와 함께 하는 명품 찬양콘서트' 제 4회 YP 콘서트가 2월 23일(토) 오후 7시30분 뉴욕에베렐선교회(담임 최장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티켓은 무료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예매가 필요하다. 이 콘서트는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이 기획하고 YP3를사랑하는후원모임이 주관한다.

▲문의: (646)258-4161, usallm2020@gmail.com



뉴욕교계 각 교단·노회별로 신년하례

KAPC 뉴욕노회, 뉴욕동노회, AG한인총회

뉴욕 한인교계가 목사회 연합금식성회를 시작으로 각 교단 노회별로 2013년 신년하례회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성회(AG) 한인총회 동중부(회장 이주남 목사), 동북부 지방회(회장 김영철 목사)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라는 주제로 신년 금식성회를 열었다. 주강사 없이 동북부, 동중부 지방회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다. 한편 동북부 지방회는 5일 플러싱에 있는 식당에서 독자적으로 신년하례예배 및 하례만찬을 가졌다.



KAPC 뉴욕노회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뉴욕동노회(노회

장 조성득 목사)는 3일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총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조영길 목사가 했으며 총회와 노회 회원교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선교국가를 향한 통성 기도가 있었다.

7일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가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조문선 목사의 인도로 기도 임양건 목사, 성경봉독 박해장 목사, 설교 장영춘 목사, 축도 김두해 목사, 광고 이영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지혜있는 목회자"(엡5:15-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새해를 맞으며 많은 소원들을 빌지만 그 소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가질 때 응답 받는다"고 전제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며 "지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지혜있는 자는 "첫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시간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며 세월을 아끼고 둘째,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충만을 받고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라고 강조했다.

노회원들은 예배를 마치고 퀸즈장로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하고 선물교환 등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흔들리는 세계 "금식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

뉴욕목사회, 미국과 조국위한 신년금식기도성회 개최

2013년 신년을 맞아 뉴욕한인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금식기도성회"를 개최했다. 회장 최예식 목사는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와 재난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인간들의 잔혹한 범죄들로 인해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성령님께서 막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식하여 기도해야 한다. 금식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금식성회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뉴욕목사회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평신도들과 함께 하는 이번 기도성회는 특별히 "조국과 미국"에 초점을 맞췄다. 최 목사는 "흔들리는 미국 경제를 살리고, 흔들리는 미국교회를 세우고, 흔들리는 미국국민을 든든히 하고, 흔들리는 하늘과 땅을 고요하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고, 갈급한 영혼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뿐"이라며 "미국과 조국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 시대를 위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자"고 말했다.

1월 1일 저녁부터 3일 정오까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파인브룩 수양관에서 가진 기도성회는 첫날 218명이 등록한 가운데 오후 7시에 집회를 시작했다. 주 강사는 박성규 목사(남가주 주님이세운교회 담임)이며, 뉴욕교계에서도 한재홍, 양승호, 김중훈, 이규섭, 이풍삼 목사 등이 강사로 섰다.

첫날 저녁은 경배와 찬양 후 "승리의 비결"(출17:8-16)이라는 제목으로 박성규 목사가 설교했다. 박 목사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은 오전 오후로 나눠 뉴욕교회장 김중훈 목사가 "복된 장마비"(겔34:25-31)라는 제목으로, 양승호 목사가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요삼2), 이풍삼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삼삼1:12-18)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저녁에는 주 강사 박성규 목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눅7: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마지막 날은 이규섭 목사가 "천국에서 큰 자"(마18:21-35), 한재홍 목사가 "당신의 선택은"(창13:5-13)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시간은 박성규 목사가 "능력있는 삶"(빌4:4-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산 42만달러 통과·교협지원 다짐

뉴욕교협 전반기 이사회, 신입이사 5명 영입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이사회(이사장 이주의 장로)가 지난 12월 27일 제 27회 전반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42만 달러에 달하는 교협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장 이주의 장로는 "담임목사가 회장인 회기에 이사장으로 섬겨 감사하다"라며 이사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백성도 이사(부이사장) 사화로 기도 이광모 이사(감사), 성경봉독 한수연 이사(서기), 설교 김중훈 목사(뉴욕교협 회장), 축도 현영갑 목사(뉴욕교협 총무)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훈 목사는 창세기 1장 27-28절을 본문으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적인 복의 개념인 기복주의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이사장 이주의 장로 사화로, 개회기도 이대연 장로(직전 이사장), 개회인사 이사장, 회원

정명 서기,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광고 김주열 총무,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27회기 사업계획은 △전후반기 두 차례의 이사회 개최와 △주소득 작성 및 교협 예산안 심의가 주 사업이며 이외에도 △신년하례회와 할렐루야대회 등 교협의 여러 연례행사를 지원하고 참여한다.

새 임원은 △부이사장(4명): 김기철 권사, 백달영 장로, 백성도 장로, 박영진 장로 △총무 김주열 장로 △서기 한수연 장로 △회계 최철환 집사 △감사 이광모 장로 등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신입회원 윤희주 장로(뉴욕에일장로교회), 한수연 집사(뉴욕에일장로교회), 최철환 집사(프라마이스교회), 백성도 장로(열방교회), 박영진 장로(뉴욕성결교회) 등 5명을 비롯해 총 13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뉴욕교협 이사는 교단 파송대표 및 이사장단과 교협회장이 추천한 평신도로 구성된다.

<유원정 기자>

색소폰연주 김종권 목사 한국찬양집회

목상과 치유의 색소폰 연주자로 잘 알려진 찬양사역자 김종권 목사가 지난 11월 28일부터 분당 남서울비전교회(최요한 목사)를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서울, 전주, 포항 등 총 8개 교회를 순회하며 찬양부흥회를 개최했다.



한국 포항동부교회(김영걸 목사)에서 지난 9일 개최된 찬양부흥회에서 김종권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했다"고 말했다.

김종권 목사는 "이번 한국집회를 계기로 오는 2월에 또 다른 10여 개국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2013년도 제1차 한국찬양부흥회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1월 28일(월) - 3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남가주 지역교회, 2013년 기도로 시작 특별부흥성회, 특별새벽기도회 등 개 교회별로 다양

남가주지역 교계와 개 교회들이 기도로 2013년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침체와 대선 앞두고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날들로 이어졌고 교계와 선교단체들은 곳곳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2년을 마감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교계소식이 그리 핑크빛만은 아니었다. 무리한 성전건축으로 인해 건물을 내주어야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선교사역을 방자하여 개 교회마다 후원을 받고 있다는 S 선교사에 대한 투고도 있었다.



은혜한인교회 신년 21 다니엘특별기도성회를 인도하고 있는 한기홍목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접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교계와 교회는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장학금전달, 자선음악회, 사랑의 쌀 나눔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 부흥성회, 특별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의 회복과 교계와 올바른 신앙교육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2013년 이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다음은 본지에 알려진 집회 소식이다(무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신년 축복부흥성회 1월 23-25일, 여리고특별새벽기도회 7-12일 △나성영락교회(박희민 목사):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7일-12일 △세계비전교회(김영빈 목사) 2013 대각성 특별새벽기도회 7-19일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신년다니엘 새벽기도회 2-25일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다니엘 20일 특별새벽기도회 2-29일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 신년맞이 새벽기도회 4-15일 △열바인침례교회(한중수 목사):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7-19일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신년특별기도회 2-12일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제7차 신년특별새벽부흥회 2-12일 △가나안교회(이철 목사): 가나안 신년새벽기도회 2-12일 △감보리민음교회(강진웅 목사): 신년특별기도회 2-19일 △글로발선교교회(김지성 목사): 신년특별새벽부흥회 7-19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신년 21다니엘 특별기도성회 2-22일

(이성자 기자)



남가주목사회 이취임식 중 열린 목사회기 이양식에서 취임회장 이운영목사가 이임회장 김영대 목사로부터 목사회기를 이양받고 있다

정직하고 바르게...맘껏 일하도록 제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 제46대 회장 이취임 예배가 3일 오전 10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 예배에서 이운영 신임회장은 "목사회를 위해 45대까지 수고한 선배 목회자에게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한다. 46대 목사회는 교협과 연합을 도모해 함께 하는 교계가 되도록 하겠다. 많은 기관이 아닌 적은 기관으로 효과 있게 이끌고 나가겠다. 목사회를 통해 목회자들이 마음껏 일하도록 하겠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임사와 취임사가 있는 후 직전 회장 김영대 회장에 이운영 신임회장이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목사회기 이양식이 있었다. 이어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가 권면, 이정근 목사(전 미주성결대학교 총장)가 격려사를,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남호경 자매(줄리어드름대 박사과정 수료)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김사무엘 목사(LA 산돌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회에서 열린 총회모습 이날 신임회장에 흥영환 목사가 선출됐다

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8대 회장에 흥영환 목사

제8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회장에 흥영환 목사가 선출됐다.

증경회장단 회원들은 지난 3일 오전 옥스퍼드팔레스트호텔에서 열린 남가주교계 및 사회단체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 이후 총회를 열고 임기 1년의 신임회장에 흥영환 목사를 선출했다.

증경회장단은 남가주교협 회장을 역임한 목회자들의 모임이며 2012년 1년 동안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담임)가 제7대 회장으로 헌신했다.

또한 이날 지난해 남가주교협 회장으로 수고한 변영의 목사가 신임회원으로 자동 가입됐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4대 담임 김경진 목사 내정 당회 최종 결정...공동회의 3분2 지지 받아야

나성영락교회가 공석이었던 담임목사를 내정했다.

나성영락교회의 4대 담임목사는 김경진 목사(한국 예수스교회 담임)로 영락교회 당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나성영락교회 측에 의하면 당회에서 김경진 목사를 4대 담임목사로 내정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법에 의거한 최종절차를 거쳐 나성영락교회 새 담임목사로 사역하게 한다고 밝혔다.

전임 립형전 목사의 경우 당회의 결정에 이어 공동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만큼 김경진 목사 역시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PCA 교단법에서



는 담임목사 청빙승인절차는 당회에서 승인이 된 후 제직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임시목사로 승인이 된다. 그 후 공동의회에서 3분의2의 지지를 얻게 되면 위임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된다.

김경진 목사는 토론토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밴쿠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한 뒤 한국의 예수스교회에서 목회했다. 예수스교회는 한국 내 외국인 난민에게 각종 의료 서비스 및 선교를 펼쳐온 교회로 알려졌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교협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제22대 오렌지카운티교회 협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오는 13일(주) 오후4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1200 W. Lambert Rd.)에서 열린다.
▲문의: (562)691-0691

미주성결교회 신년하례회
기독교미주성결교회 신년하례회가 1월 13일(주) 오후 4시30분 라크레센타 성문교회(담임 김광수 목사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에서 열린다.
▲문의: (818)542-4205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제 3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1월 18일(금)과 19일(토) 목회자, 선교사, 사모, 상담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탈봇신학교 비즈니스 빌딩(13800 Biola Ave, La Mirada)에서 열린다. 본 세미나에서는 자살, 동반존, 우울증, 인격 장애, 한인목회자 가정의 진단과 처방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수료자들에게는 탈봇신학교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등록 마감은 1월 15일(화)까지.
▲문의: (213)514-4001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신년하례 및 특강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 신년하례 및 특강이 19일(토) 오전 11시 작가의집(2401 W. James M. Wood Bl, LA)에서 열린다. 이날 특강은 '스토리텔링 속의 메가포라'는 제목으로 이연호 교수(서울예술대 초빙교수, 극작가, 소설가)가 강의한다. 현재 동 문인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2013년도 '크리스찬문학' 제24집에 게재될 회원들의 작품은 2월 20일까지 보내면 된다. 또 신입회원은 수상소감을 짧게 써서 이메일(printron@gmail.com)으로 보내기를 바란다.
▲문의: (213)249-0771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신년부흥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신년 부흥성회가 1월 11일(금)부터 13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이철호 목사(인천 강성교회 담임).
▲문의: (714)843-1652

반주자 청빙
나성중앙교회(담임 이성도 목사)는 반주자를 청빙한다.
▲문의: (818)281-6048

제1기 CMF 어머니교실 개강
제1기 CMF 어머니교실이 '회복된 어머니,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로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CMF 세미나실(13463 Pumice St. Norwalk, CA)에서 진행된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마감은 1월 31일(목)까지.
▲문의: (562)483-0191/(213)703-0769

(9면에서 계속)
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 세금양식은 1040양식과 990양식이 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등록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전 회계사는 "교회와 목회자들 중 신앙적 양심으로 인해 사회보장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자들일 경우 4361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사회보장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고 4361양식 제출 후 마음이 변해 사회보장세금을 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사회 보장연금제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며 지급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시대가 온다. 따라서 은퇴연금이나 401K 등을 통한 노후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준호 기자)

제22대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



회장 민경엽목사 이사장 박용덕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장로

- 회장단**
회 장: 민경엽목사
기획1부회장: 송규식목사 기획2부회장: 윤덕곤목사 목 회담당부회장: 손병렬목사 대외담당부회장: 박상목목사
교육담당부회장: 민승기목사 신학담당부회장: 김기동목사 영성담당부회장: 이호우목사 평신도담당부회장: 박우진집사
- 임원**
총 무: 송규식목사 협동총무: 이춘덕목사 서기: 추석근목사 회계: 서준석집사 감사: 이지수장로 강론회집사
- 분과위원장**
신 학: 오아론목사 이민목회: 오상철목사 장학: 김도영장로 교육: 심상은목사 선교: 신현철목사 음악: 김은식목사
전 도: 박재만목사 언론: 이정현목사 문학: 백낙균목사 방송: 윤우경집사 복지: 노정도목사 친교: 서양훈장로
평 신 도: 손찬우집사 여성: 웬디유사모 구제: 최정자목사 차세대: 박종기목사 청년선교: 더글라스김집사
실버사역: 주도진목사 의료선교: 윤재필집사 캠퍼스선교: 김정숙사모 다문화선교: 앤드류김목사 홍보: 이태중목사
- 이사회**
이 사 장: 박용덕목사 총무이사: 엄영민목사
이 사: 정영수목사 박학선목사 윤성원목사 이종은목사 양문국목사 한기홍목사 신원규목사
- 후원이사회**
이 사 장: 김영수장로
이 사: 박학창장로 손찬우집사 안윤태장로 이민중장로 이준영집사 이종열집사 전준홍장로 정문수장로 조상현집사

● 일 시: 2013년 1월13일(주일) 오후4시
● 장 소: 나침반교회 TEL (562)691-0691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한국교회, 영성·공공성 회복·섬김의 한 해 되자” 한국교계 시무식 갖고 새해업무 돌입

교회연합 기관과 주요 교단 등은 3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이들 교계 단체는 한국교회의 영성과 공공성 회복, 치유와 화해, 섬김의 실천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서울 태평로 코리아호텔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시무예배를 드렸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딤후 2:20-21)를 주제로 설교한 한기총 명예 연합회장인 오관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개최했다. 교단과 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진 하례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교단들의 하례예배도 이어졌다. 서울 대치동 총회본부에서 열린 예정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신년 하례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총회 분열 상황을 회개하고 산하 기관의 발전과 교단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정준모 총회장은 ‘실패를 딛고 새롭게 전진합시다’라는 설교에서 “협동은 인간적인 정치 경제 외교 등 어떤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실 때 가능하다”면서 “인본·세속·합리주의를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찾을 때 잃어버린 위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합동(총회장 손달의 목사)도 이날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예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손달의 총회장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막16:7)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통해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는 올해 ‘초심’을 품고 다시 출발할 때이며 세계교회를 위해 기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총회 임직원과 유

관기관, 노회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가 이어졌다.

이밖에 예정고신(총회장 박정원 목사)은 대구 산격동 호텔인터블로 엑스코에서 ‘양 무리의 분이 되라’를 주제로 신년 하례 예배를 드렸다. 박정원 총회장은 “세속주의에 맞서 영성운동과 교회갱신운동을 새롭게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회장·총회장 나훈교 목사)는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호텔에서 교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임시감독회장 김기택 감독)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 감리회관에서 시무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우로의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가 치유를 가져온다”며 사랑과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일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은 4일 한국교회연합회관에서 신년 하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의도순복음·기하성, 2013년말 완전통합 4일 총회 중진모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 합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양 교단 임원, 전 총회장, 위원장 등 60여명은 4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총회 중진모임’을 갖고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교단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영훈 박성배 총회장은 이날 ‘오는 15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 교회 원로목사를 임시통합총회장에 추대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해 올 연말 완전통합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목사는 이날 “꿈과 환상을 좇아 기하성이 성령운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다 보니 세계적 교단이 됐지만 어렵게도 교단이 분열되고 말았다”면서 “갈라진 기하성이 통합되면 한국의 대표 교단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분열된 한국교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남북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정근 박광수 목사님과 나 같은 교단 원로가 통합작업에 나선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세대가 도래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이 영원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며 “임시통합총회장이라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 준다면 대통합의 잔치를 베풀고 양 교단 임원이 실행위원이 되어 재단통합과 헌법개정 등 여러 안건

을 처리한 뒤 일사각오의 자세로 교단을 통합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하성 영산선교회 회장 강영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선 양 교단 총회장이 지난 1일 작성한 합의서가 공개됐다. 합의서엔 ‘양 교단 실행위원회에서 조 목사를 임시총회장에 추대, 통합과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완전 통합까지

“기하성 임시통합 총회장에 조용기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7일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통합절차를 밝기로 했다.

교단은 ‘헌법에 임시통합 총회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처조항을 확실히 만든 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 교회 원로목사를 임시통합 총회장에 추대해야 한다’는 실행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조항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 또 통합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과 통합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최성규 강인선 목사 등 일부 실행위원들은 “양 교단 통합의 중재자인 임시통합 총회장의 역할이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근거를 요구하면 임시통합 총회장이 망신만 당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통

한 지붕 두 체제로 운영, 모든 연합 사업은 임시통합총회장을 중심으로 진행, 부채문제는 기하성에서 자체 해결한 후 완전 통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 교단은 조만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조 목사를 임시통합총회장에 추대하고, 오는 15일 양 교단 인사가 다수 참석하는 기도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 목사를 임시통합 총회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합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행위원들은 장시간 논의 끝에 ‘전·현직 총회장을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법적 근거를 만들며, 통합논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합추진위원회에는 이영훈 총회장과 최성규 이재창 엄기호 이태근 목사가 선정됐다.

이영훈 총회장은 “실행위원 전원이 교단 통합 원칙에 찬성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시통합 총회장에 조 목사님을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면서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부처조항을 인준 받고 임시통합 총회장에 조 목사님을 추대하면 그때부터 교단통합을 위한 대표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한국교회사 이슈

올해는 한국교회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큰 이슈들이 많다. 올해 교계의 최대 이슈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다. 문제는 WCC를 둘러싼 교단 및 교파, 신학자들 간 견해차라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로 어우러진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우려됐던 WCC총회 찬반 단체들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WCC사는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호텔에서 교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WCC부산총회·교회연합기관, 이단문제 임원인선 등 내부문제해결 집중

동 교단은 직접적 행동보다는 신학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합동에서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든 것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불거진 교단 내부 문제 해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일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은 4일 한국교회연합회관에서 신년 하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기총회에서 구 예정 전도총회 류광수(세계복음화전도협회 회장)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결과에 따라 이단 논란이 가중될지, 수그러들지도 교계의 큰 관심사다. 오는 31일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한국교회연합은 핵심 인사인 사무총장이 여전히 공식인 상황. 따라서 누가 총책을 맡을지, 해임된 안준배 전 사무총장의 법정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주요 교단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내용을 수습하는 데 힘을 쏟

는 마지막 관문인 감독회장 선거가 다음달 26일 실시되기 때문. 최근 후보등록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등록이 거부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상화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총회 건물 완공으로 ‘여의도 시대’를 여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에서는 매년 무산됐던 ‘여성 목사 안수’안의 총회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침총회의 한 임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서 교단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특히 침신대 출신의 여성 전도사들이 타 교단으로 옮겨가고 있어

을 것으로 보인다. 노래주점 출입 설과 용역·가스총 등장, 갑작스런 파파 선인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예정 합동은 오는 9월 제98차 총회까지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총회장과 총무, 대책위원회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교단 내부에서는 140개 노회가 열리는 오는 3월 중 이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오랜 파행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감의 정상화로 가

여성목사 안수제 도입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총무의 당선무효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예정합동과 통합, 고신 등 주요 교단들은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신천지 집단 등 반기독교·이단 세력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정고신·합신, 통합위한 교류 계속 교단합동 추진위 모임 개최...2015년 이후 전망

예정고신(총회장 박정원 목사)과 예정합신(총회장 이철호 목사)이 올해도 교단 간 교류를 이어간다.

최종 목표는 교단 간 통합. 이들 교단은 지난해부터 각 교단 내에 교류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상호교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예정고신총회는 “최근 양 교단의 임원들이 주축이 된 교단합동 추진위 모임을 개최했다”면서 “올 한 해 교류활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단합동 추진위에 따르면

양 교단은 올해 열리는 교단별 장로 모임 및 교역자 수련회 등에 상호 대담을 파송하는 한편 특강 강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양 교단의 목회자 및 성도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최되는 합신장로회 수련회와 8월 예정된 고신장로회 수련회에는 양 교단 총회장단이 서로 교차 방문하는 한편 강사로 참여한다. 앞서 5월 중순 열리

는 합신교단의 교역자 수련회에도 고신 총회장이 강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 교단의 정식 통합 시점은 향후 3-5년 뒤로 내다보는 관측이 많다. 예정합신총회 박혁 총무는 “합신교단 헌법에는 타 교단과 합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교류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양 교단의 현 지도부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첫 교류를 시작한 점을 감안할 경우 대략 2015년을 전후로 교단 통합의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예정합동 비상총회 개최 결의

용역과 가스총, 비정상적 파파로 얼룩진 지난 가을 예정합동 정기총회 이후, 지속적으로 속회를 요구해 온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가 3일 대치동 총회관에서 ‘전국 노회장, 서기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총회를 다시 속회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185명. 그 중 180명이 총회를 속회하자고 결의했다. 반대는 3명, 기권 2명이었다.

찬반 투표 전 치열한 토론도 벌어졌지만 대세는 ‘비상총회’ 강행이었다. “비상총회를 열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는 의견을 피력한 목회자도 한두 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회 개최’였다. 속회 개최 날짜와 장소는 비대위 임원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140개 노회 중 109개 노회의 지지 선언, 2천550여명이 모인

총회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로 표출된 교단 개혁을 바라는 뜨거운 열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이 떨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27일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속회나 비상총회를 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정준모 총회장의 발언은 비상총회 강행이란 강수를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비대위원들의 침묵이 위 속에 진행된 신년하례 예배에서는 교단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들과 총회 임원들이 참석해 정준모 총회장을 격려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매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선교단신

2020년 '이-팔레스타인' 아랍인구 유대인 추월

오는 2020년에 이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인 인구가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팔레스타인 통계청이 1일 추정했다.

팔레스타인 통계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등에 살고 있는 아랍인은 1일 현재 580만명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구 600만명(이스라엘 통계 기준)에 조금 못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율 추세가 이어지면 2016년에는 두 인구가 같아지고 2020년에는 아랍인 인구(720만명)가 유대인 인구(690만명)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AP 통신은 인구 역전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한 국가들에 중요한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팔레스타인 거주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만이 유대인을 다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단체, 교회공격 기독교인 등 34명 살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과격 이슬람 단체가 기독교인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2일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부 마이 두구리의 두 교회를 공격해 성탄절 전야에 12명을, 6일 뒤 예배 중인 기독교인 15명을 살해했다고 나이지리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무장단체 소속원 13명도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보코 하람은 현지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다. 2003년부터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채택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슬람 사원과는 다른 사원에서 모이며,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붉은색 또는 검은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다.

이들은 무슬림을 포함,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교자로 간주해 공격한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이 단체가 모두 28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단체에 대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슬람 사원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보코 하람의 일부 지도자들이 알카에다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예멘 고원에서 기독교 유물 발견

메카에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각상이 예멘 고원지대에서 발견됐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각상은 메카에서 남쪽으로 약 935km 떨어진 도시 자파르에서 발견됐다. 자파르는 아랍부족연맹의 중심지다. 유적을 발굴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출신 고고학자 파울 울러는 자파르가 200만년을 관장하며 메카로 가는 모든 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된 조각상은 보석 형태의 모양으로 치장하고 곱슬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170cm의 남자가 새겨진 석조 부조다. 맨발로 콧수염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왼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묶음을 들고 있고 왼 안에는 십자가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머리에는 고대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통치자가 착용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왕관을 쓰고 있다. 무하마드 시대인 주후 5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러는 이 조각상에 대해 주후 525년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 지역에 온 아프리카 정복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복자들은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던 고대 제국인 악숨 왕국 통치자의 주도로 흥해를 건너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러에 따르면 아랍부족연맹은 3-5세기 아덴의 항구를 통치하면서 인도의 향신료 등 귀중품을 거래,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자파르에는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아랍 주민들도 있었다. 5세기까지 다문화 공동체는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유대교와 지배계층이 아랍 왕을 추종하면서 평화는 깨졌다. 주후 520년 그들은 나지란의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했다.

울러는 발견된 석조 부조는 공격당한 기독교 공동체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분명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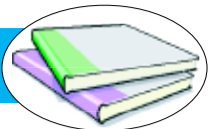
이슬람 공격으로 중동서 기독교 사라질 위기

중동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의 한 연구소가 경고했다. 영국 런던의 키비타스(Civitas 시민사회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슬람의 공격으로 성경의 중심지에서 기독교가 없어질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다"며 "서구 정치인과 미디어는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중동 기독교인의 절반 또는 3분의 2가 추방되거나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이집트와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과격 이슬람 세력이 부상하는 것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나 '성전(聖戰)'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라크의 경우 1990년대에 120만-140만명에 달하던 기독교인들이 2003년 100만명으로, 최근에는 20만명 미만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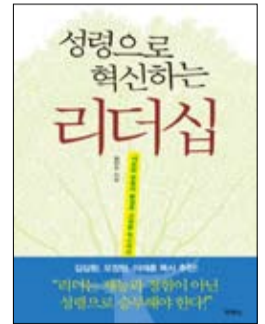
보고서는 "기독교도 다른 신앙을 박해했지만 점차 다른 신앙에 대한 관용의 전통을 발전시켜왔다"면서 "이슬람도 관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새 책 소개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

저자 정인수 목사



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인수 목사가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두란노/220쪽)을 출간했다.

이미 출간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에 이어 급변에 출간된 본서는 혁신리더십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흥의 물결로 교회를 혁신하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저자 정인수 목사는 프롤로그에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의 진원지는 분명 성령님"이라고 전제하며 '성령과 말씀이 조화된 통전적인 목회'를

장 새로운 부흥은 이렇게 시작된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라', '리더십을 평생 개발하라', '사역구조를 융통성 있게 변혁하라', '목회자 자신부터 먼저 혁신하라',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 남는다', 제3장 선교의 리더십으로 선교에 헌신하라- '선교의 비전을 품으

혁신리더십 시리즈의 결정판... '새로운 부흥의 물결로 교회를 혁신하라' 부제

새로운 목회방식으로 제언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혁신되지 않고서는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리더십의 혁신은 목회자 고독스럽고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찾아온다"고 수록했다. 또 다른 교회 부흥을 위한 혁신으로 '교회의 사역구조'를 짰다. 정 목사는 "교회학이나 목회학의 목적과 비전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될 때 구조적 부흥이 일어난다"며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마지막 교회의 비결로 선교교과 말하며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갈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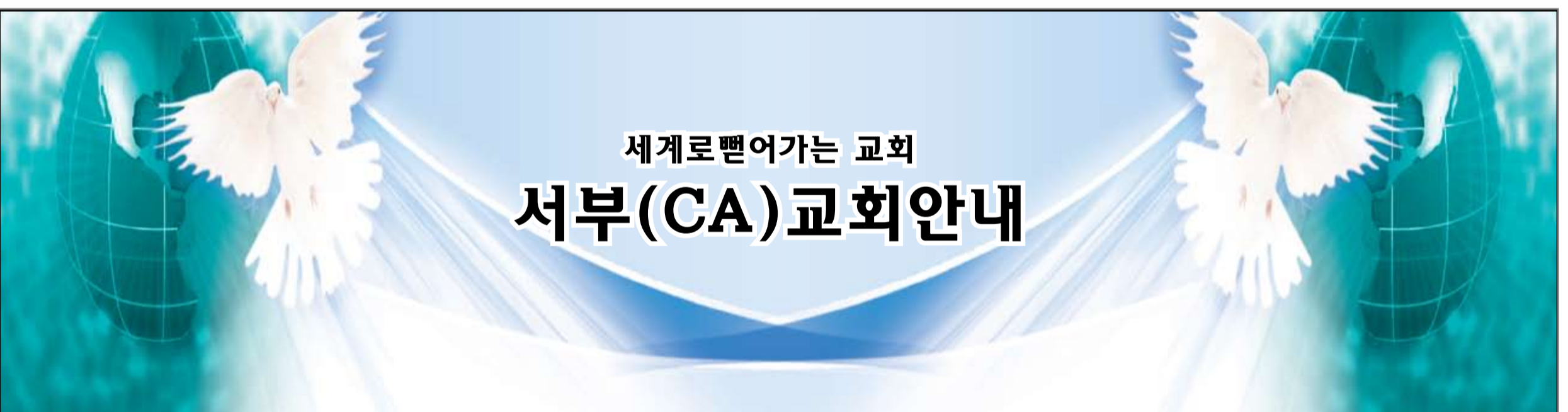
본서는 제1장 혁신의 바람이 분다- '교회를 과감히 혁신하라', '사역의 공동체로 거듭나라', '그리스도의 영을 넘치게 경험하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제2

라, '성령의 리더십으로 선교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리더십의 원천이다'로 구성되었다.

추천의 글에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는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이 세계선교의 부흥의 물결을 트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세계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부흥을 위한 혁신으로 '교회의 사역구조'를 짰다. 정 목사는 "교회학이나 목회학의 목적과 비전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될 때 구조적 부흥이 일어난다"며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마지막 교회의 비결로 선교교과 말하며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갈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수록했다.

자세한 것은 www.yunhap.org에서 볼 수 있다.

▲구입처: 미주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전 11:3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62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9-4499, Fax: (323)919-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형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isao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세부터) Tel: (323)839-7323, (F) (323)8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23)839-7323, (F) (323)8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c+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323)388-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HolyLove-영양예배) (KOC-한국어예배) 주일학교: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콜)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mj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학교: 오전 11:0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양)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6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8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0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5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7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8부예배: 오전 11:00 주일 99부예배: 오전 11:00 주일 100부예배: 오전 11:00 Tel: (919)363-5987, Fax: (919)368-9882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1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7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6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7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8부예배: 오전 11:30 주일 89부예배: 오전 11:30 주일 90부예배: 오전 11:30 주일 9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9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9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94부예배: 오전 11				

기독교문학소설

《남》이라는 다른 이야기 (18)



정채하 박사 (문학인)

“애야,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으면 목사님이 날더러 이제 새장가갈 생각이 없는지 물었잖아?”

“어디, 우리 엄마 되잖아. 좋은 여자 있대요?”

“응, 우리가 잘 아는 여자야. 오순희 집사님 알지? 지금은 시카고에 산다더러.”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란이가 묻자 그의 동생 영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아빠! 그럼 그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너희 어머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신도들에게 큰 의문을 던져놓고 돌아가셨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다.”

영란은 아버지가 최근에 와서 자주 자기의 신앙적 회와 고뇌를 발설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시작하려는 아버지의 변론이 별로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늘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주는 심판자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뎀에 병이 나는 원인은 의학사전에 있는 만큼 많을 거다. 물론 부모의 유전이나 타인의 부주의로 억울하게 병고를 치르는 자도 있겠지. 그러나 병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모든 병은 알게 모르게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란이가 묻자 그의 동생 영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아빠! 그럼 그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너희 어머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신도들에게 큰 의문을 던져놓고 돌아가셨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다.”

영란은 아버지가 최근에 와서 자주 자기의 신앙적 회와 고뇌를 발설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시작하려는 아버지의 변론이 별로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늘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주는 심판자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뎀에 병이 나는 원인은 의학사전에 있는 만큼 많을 거다. 물론 부모의 유전이나 타인의 부주의로 억울하게 병고를 치르는 자도 있겠지. 그러나 병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모든 병은 알게 모르게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란이가 묻자 그의 동생 영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아빠! 그럼 그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너희 어머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신도들에게 큰 의문을 던져놓고 돌아가셨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다.”

선교 펴기

일본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올립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큰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가게마다 ‘카도마츠(門松)’라는 장식을 만들어 놓고 새해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소원하고 있지요.

일본은 아직도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쓰나미의 잔혹한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주시고 그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선교사역 보고 (1)우즈노미야교회(宇都宮教會)

코지마 히로시 형제(79세)가 16년 동안 교회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전도주일과 바자회, 한국어교실과 요리교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예배를 통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원증행사를 통하여 항상 새신자들이 많이 초청되어 오며, 전도의 접촉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히로시 형제, 호시 에이찌 형제, 사사키 요코 자매, 나가이 루미코 자매, 오카모토 도시에 자매, 마타이찌 요시코 자매, 타구찌 자매, 키타즈코 자매, 사이토(황) 자매, 카도우 자매(오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고요하라).

③교회당의 건물이 현도로가 나는 관계로 허물고 새 교회당을 건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의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 될 것입니다. 약 50평 정도의 면적이 현도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②니이가타 개척전도(新潟開拓伝道) 보고

니이가타 개척교회는 2001년부터 우즈노미야교회가 개척하여 왔습니다. 2007년 7월 25일부터 고베(神戸)신학교를 졸업하신 일본 그리스도개혁교회단의 윤기석 목사님을 모시고, 니이가타시내(인구 85만)에 사카도 교회와 연합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②2012년 4월 25일에 니이가타 시내에 예배당을 이전하였습니다(목사관 겸용).

③새로운 교회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②9월 29일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③대외적활동 ①2012년 9월 일본그리스도개혁교회 총회장 요시다 타카시 목사님을 모시고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총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선교우호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양교단간 교류와 현재 일본개혁교회단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GMS선교사는 6명이 됩니다.

노회의 정기목사회에서 연구 발표를 했으며, 시찰의 8.15기념 모임에서 “동일본 한국인이 본 일본헌법9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일본성도들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③일본관동지부(일본 동경지역)가 비대한 지부가 되었기에 3개지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본지부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센다이, 후카이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지부원으로 임원(부지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④GMS(세계선교회) 소속 GBN(Global Business Network)의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4)가족근황

①2011년 10월-2012년 3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병가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한진명은 2009년 자궁절개수술 후, 다시 난소염착이 있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②큰 아들 영재도 일시적으로 건강을 잃었는데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전북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③둘째 아들 민재는 한동대학을 포기하고, 반 학기 동안 일본에서 홀로 남아 공부를 하여 일본 7대 국립대학인 동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④부친 마유석(75세) 2012년 9월 폐암말기(4기) 선고를 받고 투병(항암치료 3번째)중에 있습니다.

(5)기도제목 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②우즈노미야교회의 새신자들의 신앙고백을 위하여 ③니이가타개척교회의 부흥과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④두 아들의 대학생활을 위하여

일본에서 사랑을 입은 자 마영렬 한진영 선교사 올림

이메일: jesuusyama@live.jp, Web-site: 2013년 2월 완성예정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Table with 8 columns and 4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갈보리장로교회, 남부한인장로교회, 동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맨델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볼티모어교회, 샬롯장로교회, 새시온침례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얼린교회, 엘파소얼린교회, 영생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주에수교회, 큰루교회, 타코마삼일교회, 타코마생명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템피파교회, 하트포드침례장로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에덴장로교회, 하와이 한국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6)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중심의 교육(Church-Centered Education), 둘째는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Education),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Education)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우리 한인교회교육의 "현상"인 동시에, "지향"이 될 수 있음을 설명 드려왔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각각의 현상들이 갖는 가치와 의미가 크기도 하거니와 현재 우리의 사역에 대해 그저 좋다 나쁘다, 된다 안된다 하는 아픈 비판을 가하기보다는(물론 우리 사역의 모습들에는 분명히 건설적이고 애정 어린 비판을 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지요), 우리의 사역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 출발하여 보다 발전되고 건설적인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역의 자리에서 성심으로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해 온 일선의 우리 한인 사역자들을 응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같은 맥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그 네 번째 성격,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처음 이 미국 땅에 한인교회가 세

교회의 현상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욱 세련시키고 발전된 모습으로 키워간다는 전제하에 우리 한인교회 교육이 지향할 만한 선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어 아닌 미국 땅,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전통을 전수하는 것보다 미국적인 문화에 더욱 동화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 때문에 한국어 문화, 가치관, 신앙전통 등을 굳이 애를 써서 전수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들도 있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꼭 가르쳐야 한다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한국어는 못해도 되지만 영어는 잘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인 부모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한국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혼란과 충돌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염려의 소리들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적인 그러나 긍정적이지 못한 습성들의 답습이 일어날까를 염려하기도 했으며, 전통 전수의 과정에서 자녀들의 반발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염려와 걱정들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으며 또한 그 안에는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전수하는 우리의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그래서 배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럼

전통 전수하는 교회교육은 '바람직한 것' 교육사역철학과 실행에 중요 축 삼아야

워지고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바람직한 다 여겨지든 그렇지 않든, 의도적이었던 그렇지 않든,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은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왔으며 또한 지금도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은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한인 교회 공동체에서의 한국적 전통 전수는 충, 효, 인(忠,孝,仁), 공동체 의식과 같은 사상적 전통에서부터 음식, 생활양식, 놀이, 역사, 문화유산, 언어 등과 같은 문화적 전통, 그리고 보수신앙, 뜨거운 영성, 기도회 등의 신앙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우리 한인 자녀들은 신앙교육 공동체인 교회에서(물론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민족문화가 드러나는 보다 확장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한인 어른들의 한국 문화적 풍습들, 가치관, 생활양식들, 그리고 한국적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오면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자연스러운 배움과 전수의 과정이 생성되어왔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도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 그리고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전수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꾸준히 한국적인 정서, 문화, 신앙 등에 익숙해지고, 이들을 자신들의 삶과 인격과 신앙에 담아내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역시, 우리 한인

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제대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교육 사역 철학과 실행에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에 대해 여러 논란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왔던 이유는 한인교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는 뜻지고 귀중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일이 왜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의 이유를,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의 당위를 명확하게 내면화하여 제시하지 못했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한국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는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면 왜 어떠한 면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면 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우리 사역자들이 스스로에게도 대답할 수 있고, 또한 다른 한인 어른들과 한인 자녀들에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논란과 염려들을 극복하고 더 건설적이고 발전된,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강화된, 선한 결과를 일구는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rch@yahoo.com

매일가성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영혼의 등불(잠20:16-30)찬96장

본문 27절, 사람들은 영혼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외에 영혼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 "영", "속사립" 등으로 달리 표현하면서 그것을 살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개역에는 이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 NIV역에는 하나님께 영혼을 찾으신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혼을 사람의 몸을 밝히는 눈으로 비유하면서 눈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마6:22-24). 다했은 주의 말씀을 받의 등이요 빛임을 알고 밝은 영혼을 가지려면 말씀의 빛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시119:105). 하나님 앞에 사는 자만이 밝은 영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자기 영혼을 말씀의 빛 안에 정직히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에 최우선권을 둘 때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새해에 내 영광(영혼)을 깨우십시오.

심판대 앞에서(잠21:1-14)찬202장

잠언에 지도자를 가르치는 내용이 많은 것은 실제적 정치지도자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신자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르치는 면이 더 강합니다. 첫째,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터진 불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권세가 왕에게 있으나 여호와와 경외하는 왕은 왕권을 바로 행사해 참 자유와 형통을 체험합니다. 진리가 있는 것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

다. 둘째, 방종하기 쉬운 권력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은 신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공부나 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만왕의 왕의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움으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새해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린 대로 거둔다(잠21:15-33)찬260장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의인은 의를 즐거워하지만 죄인은 불의를 기뻐합니다(15). 의인은 공의를 즐거움으로 삼음으로 얻는 흥망을 체험하지만 악인은 불의를 즐기다가 마침내 저주를 받아 멸망이 홀연히 찾아옵니다. 둘째, 멸명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 안에 거합니다(16). 의인은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지만 악인은 망합니다(시1:6). 교회는 성령의 조명 안에 살기를 힘쓰는

밝은 회중입니다. 셋째,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망합니다. 연락, 술, 그리고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17)은 육적 쾌락에 심취한 자의 위험을 경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새해에 경외신앙을 가진 의인의 보장받는 길을 걸어갑시다.

미련에서 벗어나라(잠27:14-21)찬82장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14).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적응성을 간과한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복을 저주로 취급해 복의 존엄성을 해치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니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접근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축원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할지라도 아침에 큰 소리는 경우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작은 소리로 축원하는 적응성 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도는 폭탄 터뜨리는 방식보다 때에 맞는 유익을 주려는 진지하게 걷는 길입니다. 미련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을 걸읍시다.

바른 일꾼(잠22:1-16)찬517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경외신앙이 교육을 통해 전수됨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마땅히 행할 길 곧, 성경을 가르쳐 배우고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론 중심인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깨달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르칠 때,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진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혜의 생활은 기록된 바른 말씀에 착념해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의

교육함으로 표현됩니다(딤후3:16). 정보전달만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본을 보이면서 적응시켜야 합니다. 셋째, 아이 때에 가르쳐야만 합니다. 영육의 유지기에 말씀의 틀을 잡고 말씀으로 양육함이 지혜입니다. 그 결과는 장래에 진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성경을 깨닫고 본을 보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른 일꾼이 됩시다.

온전한 지혜(잠22:17-29)379장

지혜자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나? 첫째, 지혜자의 말씀과 지식은 여호와 경외신앙을 가리키며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개인적 형태로 나타나기를 "지혜와 내(인정)"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제자도의 방법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개인의 마음에 보존되고 입술로 표현될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르칠 때,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진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혜의 생활은 기록된 바른 말씀에 착념해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의

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와 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이유는 행위의 분을 따르므로 영혼이 울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산업에도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근심한 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지혜의 삶은 약한 자를 잠재하지 말고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자를 하나님께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20-21).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약1:27).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18-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40-9000, Fax. (82)3-436-5770 서울시 동부구 용두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송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264-9419-5, Fax. (062)522-4834 500-170 광교광역시 북구 운양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2)197-8383~9, Fax. (82)19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6(로마)로마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568-0191,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2-053)	새애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점심예배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4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3, (152-053)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2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영리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도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32-568-0191, Fax. (8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신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월-토)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20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암로 415 www.yan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0: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2009, Fax. (82)32-527-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194 (10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2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2-4608 서울시 영등포구 성안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사



김성길 목사
• 시온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항의영 목사
• SBM 대표



송용걸 목사
• 신천교회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로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만영 목사
• 친구들교회



김순식 목사
• 김재 중앙장로교회



김구경 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 성지순례,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으로 현지 공항에서 영접하여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 (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선금을 등록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